

文學碩士 學位論文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에 관한 연구  
- 울산 중구 반구동유적을 중심으로-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池 潤 美

2009年 12月

#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에 관한 연구

- 울산 중구 반구동유적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池 潤 美

# 池潤美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12月

## <목 차>

|                                  |    |
|----------------------------------|----|
| I. 머리말.....                      | 1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현황.....                     | 2  |
| 3. 연구범위와 방법.....                 | 3  |
| II.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분류.....    | 5  |
| 1. 분류기준.....                     | 5  |
| 2. 관련 유적 검토.....                 | 14 |
| 3. 형식분류.....                     | 29 |
| III.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편년.....   | 35 |
| IV. 경주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의 비교.....   | 39 |
| V.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울산의 지리적 특징..... | 45 |
| VI. 맺음말.....                     | 50 |
| 참고문헌.....                        | 52 |
| Abstract.....                    | 56 |

## <표 목차>

|                                            |    |
|--------------------------------------------|----|
| 표1. 고식연화문수막새 문양의 분류기준.....                 | 6  |
| 표2. 소성도 구분.....                            | 13 |
| 표3. 울산 반구동토성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21 |
| 표4. 울산 양수정유적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22 |
| 표5. 울산 범서면 입암리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24 |
| 표6.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25 |
| 표7. 울산 취선사지, 반구대 부근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27 |
| 표8. 울산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형식분류표.....            | 34 |
| 표9. 문헌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신라시대 사찰.....             | 47 |

## <도표 목차>

|                                       |    |
|---------------------------------------|----|
| 도표1. 제작기법별 고식연화문수막새 출토 비율.....        | 11 |
| 도표2. 수막새 직경 분포도.....                  | 12 |
| 도표3. I-1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표.....            | 30 |
| 도표4. I-2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표.....            | 31 |
| 도표5. 울산지역과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형식별 출토량... | 38 |

## <그림 목차>

|                              |    |
|------------------------------|----|
| 그림1. 막새기와 각부 명칭.....         | 5  |
| 그림2. 목제와범의 흔적(울산 반구동유적)..... | 7  |
| 그림3. 고식연화문수막새 접합기법 모식도.....  | 8  |
| 그림4. A형 제작기법.....            | 9  |
| 그림5. B형 제작기법.....            | 9  |
| 그림6. C-1형 제작기법.....          | 10 |
| 그림7. C-2형 제작기법.....          | 10 |
| 그림8. C-3형 제작기법.....          | 11 |

|                                                                      |    |
|----------------------------------------------------------------------|----|
| 그림9. 울산 반구동유적 유구배치도(1/2,000).....                                    | 15 |
| 그림10.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전경.....                                      | 16 |
| 그림11.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초석 세부.....                                   | 16 |
| 그림12.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공반유물.....                                    | 17 |
| 그림13.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 1.....                                       | 18 |
| 그림14.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 2.....                                       | 19 |
| 그림15. 울산 반구동토성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20 |
| 그림16. 울산 양수정유적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22 |
| 그림17. 울산 입암리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23 |
| 그림18.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25 |
| 그림19.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에서 출토된 전돌.....                                      | 25 |
| 그림20. 울산 취선사지(1), 반구대 부근(2)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27 |
| 그림21. 울산·경주 고식연화문수막새 출토유적.....                                       | 28 |
| 그림22. 고식연화문수막새 I-1.....                                              | 29 |
| 그림23. 고식연화문수막새 I-2.....                                              | 30 |
| 그림24. 고식연화문수막새 I-3.....                                              | 31 |
| 그림25. 고식연화문수막새 I-4.....                                              | 31 |
| 그림26. 고식연화문수막새 II-1.....                                             | 32 |
| 그림27. 고식연화문수막새 II-2.....                                             | 32 |
| 그림28. 고식연화문수막새 III-1.....                                            | 33 |
| 그림29. 고식연화문수막새 III-2.....                                            | 33 |
| 그림30. 고식연화문수막새 III-3.....                                            | 33 |
| 그림31. 고식연화문수막새 IV.....                                               | 34 |
| 그림32.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 공반 출토 토기.....                                | 36 |
| 그림33. 분할절지법 예(월성해자 출토유물).....                                        | 37 |
| 그림34.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경주지역 출토 고식연<br>화문수막새의 비교(I-1·I-1·II 형식)..... | 40 |

|                                                                |    |
|----------------------------------------------------------------|----|
| 그림35.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경주지역 출토 고식연<br>화문수막새의 비교(Ⅲ-2・Ⅳ형식)..... | 41 |
| 그림36. I -2형식 동범의 예.....                                        | 43 |
| 그림37. I -1형식 동범의 예.....                                        | 43 |
| 그림38.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동범와.....                               | 44 |
| 그림39. 울산지역 고식연화문수막새 출토유적 및 주변유적.....                           | 47 |

# I. 머리말

기와는 생산지를 제외하면 궁전·사지·관아·성곽 등의 특정 장소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고고학에서 정치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중 있는 유물이다. 즉, 특정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기와는 정치적·종교적 권위와 거주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유물로 볼 수 있다<sup>1)</sup>.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기와 중에서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대상으로 울산지역 고신라 기와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연구목적

울산은 왕경인 경주의 남쪽에 위치하여 신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경주에 인접해서 동해와 남해로 연결되는 신라의 외항으로 교류와 외교의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경주의 직접적인 통치로 인해 관부건축이 조영되어 기와가 발달하였을 것이다. 울산지역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오래전부터 범서읍 입암리사지, 북구 중산동사지,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는 취선사지, 두동면 천전리 일대에서 출토되어 중요시되었다. 최근 울산 반구동유적에서 고신라시대 기와가 많은 수량이 출토되어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고신라 기와 자료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역의 고식연화문수막새를 검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속성분석과 형식분류를 통해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시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동시기의 경주지역 기와 자료와 비교를 통해 울산지역 고신라 기와가 가지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1) , 「平安貴族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ってと-」, 『歴史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 2. 연구현황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도록이나 논문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정리 및 연구는 없었다<sup>2)</sup>. 여기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齊藤忠<sup>3)</sup>은 울산 범서읍 입암리 출토 수막새를 검토하면서 6엽의 단판 연화문수막새의 성립시기가 통일기까지 올라가는 사천왕사(679년) 및 안압지에서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신라 이후의 수막새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유적의 창건 연대만 생각한 것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박홍국<sup>4)</sup>도 金陵 西部洞廢寺·영양 화천동폐사에 8~9세기 석탑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울산 범서읍 입암리를 포함한 지방 출토의 고식 수막새를 삼국시대로 올려보는 것에 부정적이다.

高正龍<sup>5)</sup>은 영남지역에서 발견된 고식수막새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보와 제작지,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 수막새에 대해서 지리·역사적인 위치로 보아 신라 [경주] 계로 보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으나, 수키와의 제작기법에서 접합기술의 미숙으로 보 족점토를 다량 사용하여 경주지역과의 두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막새를 울산에서 제작하였거나 혹은 와범을 휴대한 경주의 기와기술 자가 타지의 토기공인들을 지도하면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한 결과로 보

2) , 「慶州附近出土の單瓣蓮花文古瓦の一型式-蔚山郡凡西面立岩里遺址出土例を中心として」, 『夢殿』第18冊特輯號, 綜合古瓦研究, 1983.

井內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 譜Ⅲ』百濟新羅 I, 1978, p.57.

金東賢外編著, 『新羅의 기와』韓國建築史大系 V 建築과 文樣(上) 東山文化社, 1976, p.188~189.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磚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磚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p.90~92.

국립경주박물관, 『菊隱 李養瑋 蒐集文化財』, 1987, p.125.

高正龍, 「韓國嶺南地方から發見される古式瓦当につ」, 『杉山信三先生米壽記念論集 平安京歴史研究』, 1993.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新羅瓦磚』, 2000, p. 166-168.

金有植, 「蔚山郡 立岩里 出土 蓮花文圓瓦當에 對한 小考」, 『佛敎考古學』創刊號, 2001.

3) 齊藤忠, 「앞의 논문」, 1938.

4) 朴洪國, 「앞의 논문」, 1986.

5) 高正龍, 「앞의 논문」, 1993.

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에 대해서 고신라의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고신라시대에 제작되었다라든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성과와는 달리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황룡사, 안압지, 월성 등에서 출토되는 것과 同形瓦<sup>6)</sup>이거나 同范瓦<sup>7)</sup>의 고식연화문수막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II, IV장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 3. 연구범위와 방법

이 논고는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특징은 주연에 연주문이 없으며, 주연이 높은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신라가 통일되기 전인 고신라, 즉 신라가 성립하고부터 통일이 되기 전까지인 B.C. 57~676년에 이르는 시기이나 여기서 주로 다루는 시기는 600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신라가 통일된 676년 전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울산지역을 주로 하여 울산지역을 제외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는 지역도 필요에 따라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이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울산 반구동유적 257점, 울산 반구동 토성지 6점, 울산 양수정유적 5점과 지표조사에서 출토된 울산 범서읍 입암리사지 6점,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 2점, 울산 반구대 부근 1점, 울산 삼동면 하잠리 취선사지 1점으로 총 278점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울산 반구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

6) 같은 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양이 유사한 瓦를 말한다.

7) 하나의 范에서 찍은 여러 점의 동일한 瓦를 말한다.

첫째, 반구동 유적은 울산지역에서 조사 예가 매우 드문 고식연화문수막새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속성구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조사된 건물지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면서 개·보수가 이루어져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이것을 시기별로 분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반구동 유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I-1호 건물지는 존속기간이 짧고 출토된 유물의 비율도 고식연화문수막새가 136점, 중판 연화문수막새 7점이 출토되어 고식연화문수막새의 출토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교적 안정된 편년이 수립된 토기와 공반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편년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연구 범위에 따라 울산지역의 고식연화문수막새에 대한 자료 검토와 속성분석, 형식분류 등의 연구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278점의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분류기준을 정리하고,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별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분류하고 나서 주변화 속성인 문양을 중심으로 4형식으로 설정하고 형식별 특징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행한 형식분류를 기초로 공반유물과 수키와 부의 특징 등을 참고하여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3단계로 나누어 편년을 하였다.

IV장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경주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비교하였으며 V장에서는 울산지역에 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는지에 대해 문헌자료와 고고학자료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VI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II.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분류

### 1. 분류기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분류하기에 앞서 고식연화문 수막새의 각부 명칭을 [그림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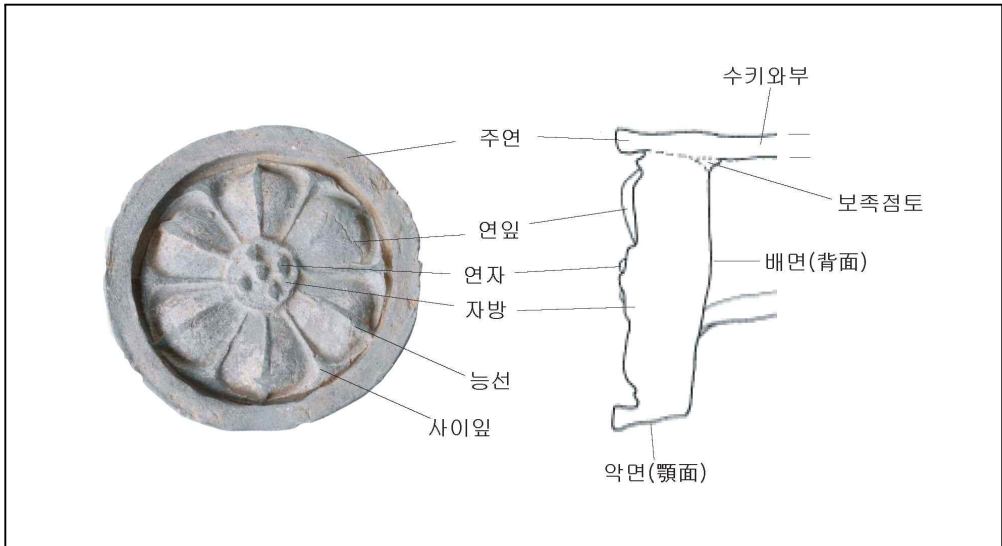


그림 1. 막새기와 각부 명칭

기와에서 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기와가 완성되고 난 이후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속성 즉 색조, 소성도, 태토, 크기 등이 있다.

둘째, 기와를 제작할 당시 가해진 도구나 조정에 의한 흔적과 관련된 속성이다. 막새기와에서는 드림부 문양, 수키와부의 내·외면 특징, 접합기법과 관련 흔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다양한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비로소 형식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색조, 소성도, 태토, 크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들 속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겠다. 반면 기와를 제작할 당시 남은 흔적, 즉 문양과 접합기법에서 큰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 (1)문양

고식연화문수막새에 있어서 문양은 크게 연잎, 자방, 사이잎으로 구분된다. 연잎은 연잎의 배치와 연잎의 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방은 형태와 원권에 따라 구분된다. 사이잎은 모양에 따라 5가지로 구분되며 좌우연결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의 속성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고식연화문수막새 문양의 분류 기준

| 구분1 | 구분2     | 특 징                           |
|-----|---------|-------------------------------|
| 연잎  | 연잎의 배치  | 단판(단)-하나의 연잎으로 이루어진 것         |
|     |         | 복판(복)-연잎이 중앙에 있는 縱線에 의해 二分된 것 |
|     | 연잎의 수   | 6엽(6)                         |
|     |         | 8엽(8)                         |
|     |         | 10엽(10)                       |
|     | 능선      | 능선이 있는 것(유)                   |
|     |         | 능선이 없는 것(무)                   |
| 자방  | 형태      | 돌출자방(돌)                       |
|     |         | 평면자방(평)                       |
|     | 원권      | 원권이 있는 것(유)                   |
|     |         | 원권이 없는 것(무)                   |
| 사이잎 | 모양      | 'T'자형 사이잎(A)                  |
|     |         | 역삼각형 사이잎(B)                   |
|     |         | 부채꼴형 사이잎(C)                   |
|     |         | Y'형 사이잎(D)                    |
|     |         | 'T'자형이면서 머리부분이 접힌 사이잎(E)      |
|     | 좌우연결 유무 | 사이잎의 좌우측이 연결된 것(A)            |
|     |         | 사이잎의 좌우측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B)     |

한편, 문양면은 틀에 의해서 찍어내는 것인데 와범의 재료에 따라 목제 와범, 도제와범으로 나누어지며 통일신라에는 도제와범이 발견된 예<sup>8)</sup>가 있으나 아직 고신라에서는 와범이 발견된 예가 없다. 고신라의 수막새는 대부분 목제 와범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 그 틀이 출토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문양면에 남은 흔적으로 추정할 뿐이다. 반구동 유적의 수막새는 대부분 나뭇결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목제 와범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



그림 2. 목제와범의 흔적(울산 반구동유적)

## (2) 접합기법

현재까지 수막새의 제작기법은 문양이 있는 막새와 수키와를 접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sup>9)</sup>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문양을 제작하는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0)</sup>.

막새와 수키와를 접합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와범과 점토판을 준비한다.
- ② 와범의 문양면을 위로 향하게 둔다.

背面과 顚面에서 보이는 회전횡방향의 물손질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물레 위에 올려 성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8) ,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앞의 책』, 2000, p.400~401.

9) 김필숙, 「막새의 접합기법에 대하여」, 『연보』 8, 경주문화재연구소, 1997.

尹根一,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10) 李善姬, 『月城垓字 出土 수막새의 製作技法과 編年 研究-古式 수막새를 中心으로-』, 東亞大學校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2006. 12.

③ 와범위에 점토판을 올려 도구나 손을 이용해 눌러 문양이 찍혀 나오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점토를 덧붙인 것이 확인된다.

④ 와범에 붙어 있는 그대로 수키와를 접합하게 되는데 여기에 다양한 방법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순서로 제작되는 수막새와 수키와의 접합기법은 크게 3가지가 확인되며 [그림 3] 과 같이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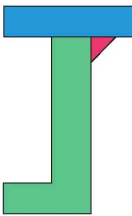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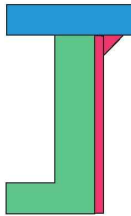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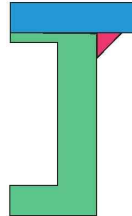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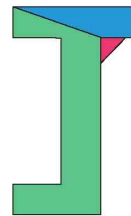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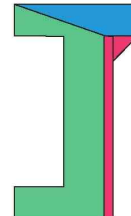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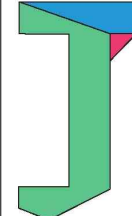
| 접합<br>지법<br>구분                                                                                                                                                                                                                                                            | A                                                                                 |                                                                                   | B                                                                                 | C                                                                                 |                                                                                   |                                                                                     |
|---------------------------------------------------------------------------------------------------------------------------------------------------------------------------------------------------------------------------------------------------------------------------|-----------------------------------------------------------------------------------|-----------------------------------------------------------------------------------|-----------------------------------------------------------------------------------|-----------------------------------------------------------------------------------|-----------------------------------------------------------------------------------|-------------------------------------------------------------------------------------|
|                                                                                                                                                                                                                                                                           | A-1                                                                               | A-2                                                                               |                                                                                   | C-1                                                                               | C-2                                                                               | C-3                                                                                 |
| 모<br>식<br>도                                                                                                                                                                                                                                                               |  |  |  |  |  |  |
|  : 막새부  : 수키와부  : 보족점토 |                                                                                   |                                                                                   |                                                                                   |                                                                                   |                                                                                   |                                                                                     |

그림 3. 고식연화문수막새 접합기법 모식도

1) A형 [그림4] : 주연부의 일부가 칼로 반듯하게 잘려 있으며 이것은 수막새의 주연부 1/2가량을 자르고 수키와를 붙여 주연부를 만든 것이다. 수키와 일부가 그대로 드림부의 주연이 되기 때문에 드림부의 안쪽 내면에 수키와의 내면에서 볼 수 있는 포목흔이 있다. 顚面과 背面에는 수키와 접합 전후에 시행한 물손질, 목리조정 등의 정면흔적이 남아 있다.

- ① A-1형 : 보족점토가 일부만 있는 것
- ② A-2형 : 보족점토가 背面 전체에 있는 것



그림 4. A형 제작기법

2) B형 [그림 5] : A형과 같이 주연부의 일부가 칼로 반듯하게 잘려 있으나 주연부를 모두 잘라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자른 것이다.



악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악면과 그림 5. B형 제작기법

배면에는 수키와 접합 전후에 시행한 물손질, 목리조정 등의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3) C형 : 수막새의 주연부를 일부 깎고 거기에 수키와의 광단부 끝을 일부 깎은 것을 접합한 것이다. 수키와가 주연부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접합방법이다. 이때 주연부와 수키와는 모두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깎여 있다. 수키와의 광단부 끝을 깎았기 때문에 막새 악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악면과 배면에는 수키와 접합 전후에 시행한 물손질, 목리조정 등의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① C-1형 [그림 6] : 보죽점토가 일부만 있는 것



그림 6. C-1형 제작기법

② C-2형 [그림 7] : 보죽점토가 배면 전체에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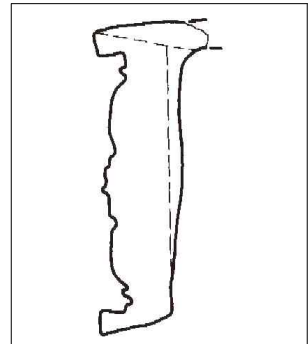


그림 7. C-2형 제작기법

③ C-3형 [그림 8] : C-1형과 같이 주연부의 1/2가량을 주연부를 일부 남겨 두고 잘라내고 수키와를 접합하고 외면을 도구를 이용하여 깎아서 정리하였다. 배면에 동심원의 회전방향 물손질이 확인되며 이것은 회전판 위에서 물레 성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면에 횡방향의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어떤 것은 도구로 깎여 있고 둥글게 정리된 것도 확인된다. 수키와부가 붙은 곳과 붙이지 않은 곳의 두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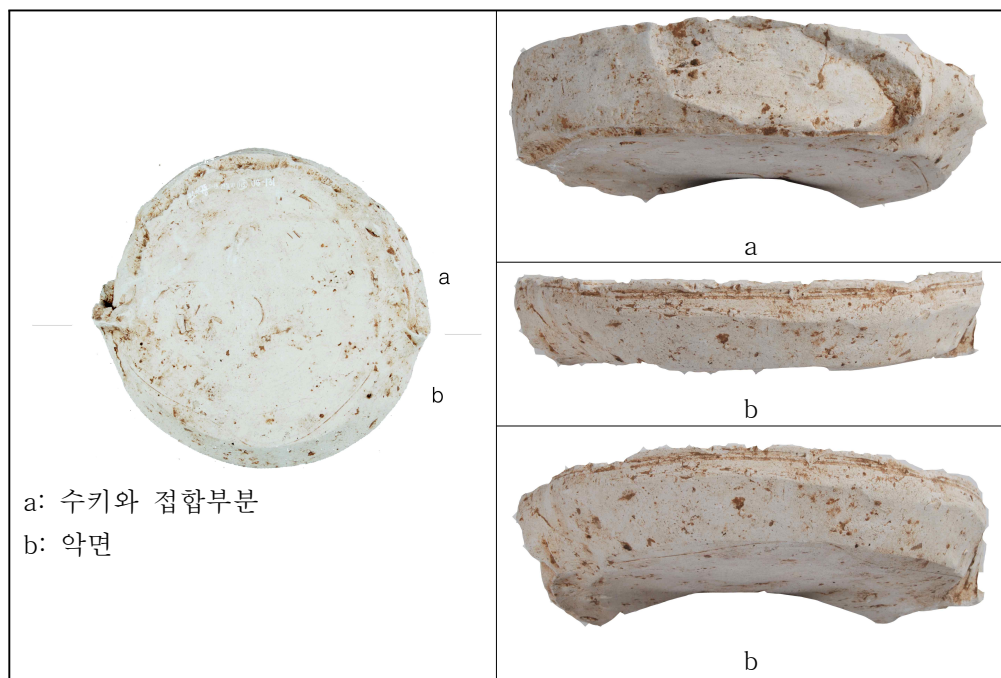


그림 8. C-3형 제작기법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 수막새의 제작기법을 알아보았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작기법은 C-1형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도표 1].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同范의 고식연화문수막새에서 다양한 제작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동일 공방에서 제작되었더라도 만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내에 미묘한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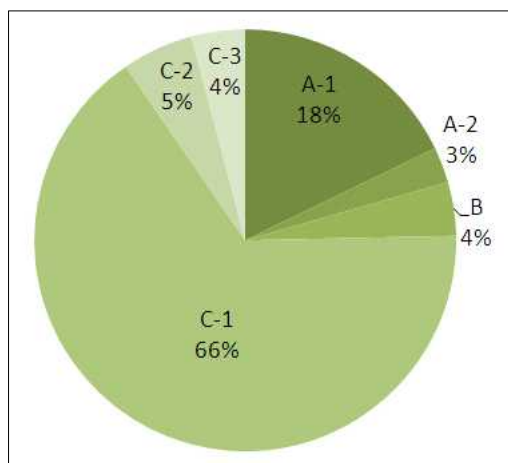


도표 1. 제작기법별 고식연화문수막새 출토 비율

### (3) 크기

직경은 같은 직경을 가진 막새와들을 건물에 올린 것이므로 건물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된다.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의 직경은 크게 3개의 분포를 나타낸다 [도표 2]. 울산 범서읍 입암리사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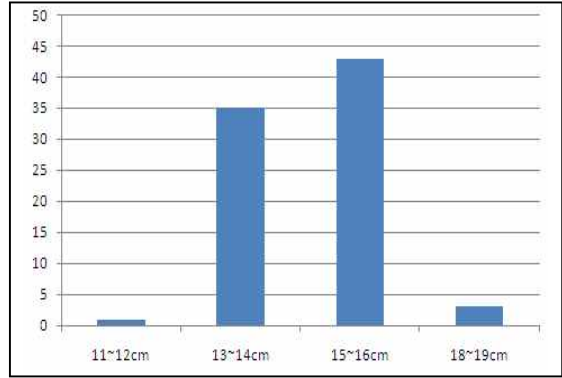


도표 2. 수막새 직경 분포도

서 출토된 11.5cm의 소형막새<sup>11)</sup>와 울산 양수정유적에서 출토된 18.5~19.2cm의 분포를 보이는 대형막새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직경은 13.5cm~16.1cm이며 악면 두께는 2.5cm~4.5cm 내외이며 3.0~3.5cm 사이의 분포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 (4) 색조

색조는 1차적으로 제작 당시 태토·소성온도·와요의 구조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는 지붕에 기와가 사용될 당시 받은 자연적인 영향과 기와 건물의 화재 때문에 불의 영향·출토되기 전 매몰 환경의 영향 등으로 색조가 달라질 수 있다<sup>12)</sup>. 색조는 회청색, 회갈색, 회흑색, 명회갈색, 명적갈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同范의 막새에서도 서로 다른 색조가 확인된다.

### (5) 무게

기와의 무게는 당시 기와집의 지붕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sup>13)</sup>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다. 반구동유적에 출토된 기와를 통해 고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의 평기와의 무게를 재어 보았을 때 점점 그 무게

11) 소형 수막새는 막새의 지름이 10cm 내외로서 용도는 주로 사찰의 소형 건물이나 단집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앞의 책, 2000. p. 53.

12) 金有城,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기와는 토기와 자기 등의 유물과는 달리 한 개체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 한 개 이상 많게는 수 백장 이상이 서로 어울려서 제 기능 즉, 防濕, 防火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가 무거워 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건축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I-2호 건물지, I-5호 건물지에서 수키와 부까지 완전히 남아있는 것이 4점 있으며 무게는 각각 2.3kg, 2.2kg, 2.6kg, 2.5kg이다.

#### (6) 소성도

소성도는 와요의 구조, 태토, 땀감, 와요에서 기와가 놓인 위치 등과 와공의 기술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생각한다.

#### (7) 태토

여건상 기와를 실물로 관찰 가능한 것은 반구동 유적의 출토품뿐이지만 다른 유적의 출토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구동 유적의 기와를 관찰한 결과 태토는 아주 고운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고신라시대 토기에 사용된 태토와 비슷하다.

#### (8) 수키와부의 특징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대부분 지표에서 수습되어 수키와부까지 남아 있는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구동유적에서 다수의 수키와부가 부착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6점이 출토되어 수키와부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수키와부의 문양은 단판타날 문양이 확인되며 무문양도 일부 확인된다. 여기서 무문양은 원래 타날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마무리질에 의해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5판 정도의 타날판을 두드려 성형하였다. 크기는 길이 32cm 내외이고 너비는 협단부 10.4cm, 광단부 16cm, 두께는 0.8~1.9cm 정도이다. 측면은 파쇄면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 2. 관련 유적 검토

울산지역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은 7곳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반구동유적, 반구동토성지, 양수정유적 3곳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중산동사지, 입암리사지, 취선사지, 반구대부근에서 출토된 것은 지표조사를 통해 출토된 것이다.

### 1) 울산 반구동유적<sup>14)</sup> [그림9~14]

반구동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30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조사는 2006년 12월 6일에 시작하여 2007년 6월 20일에 완료하였다. 2차 조사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에서 공사도중 목책시설이 확인되어 2008년 3월 14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반구동유적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구는 I-1호~6호 건물지, III-1호 건물지, I-9호 수혈, III-29호 수혈유구, III-44호 수혈유구, 목책, 목재 우물과 그 외에도 지표에서 266점이 출토되었다<sup>15)</sup>. 유구들은 외곽에 목책시설이 둘러져 있으며 그 중심에 I-1호 건물지가 있고 그 주변에 신라시대 건물지와 수혈, 주혈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I-1호 건물지는 길이 35.4m, 잔존 폭 7~8m, 최대깊이 80cm이고 건물지의 중앙에 자연암반이 위치하며 자연암반에는 정교하게 굴착하여 가공한 柱礎石 6개가 있다. 초석의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1칸이다. 초석의 규모는 너비 135~150cm이고 깊이는 30~50cm이다. 초석의 간격은 260cm로 6개의 간격이 모두 같다. I-1호溝에 의해 동북쪽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교란이 없고 안정된 층위에서 토기와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다. 고식연화문수막새가 136점이 출토되었으며 암막새 1점<sup>16)</sup>, 통일신라시대 수막새가 7점, 평기와가 198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현황으로 보아 고신라 시대에 건물이 세워져서 통일신라시대에는 건물이 일부 보수만이 이루어

14)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앞의 책」, 2009.

15) 이 중에서 문양을 알 수 없고 수키와부만 잔존하는 9점을 제외한 257점을 분류대상으로 하였다.

16) 고신라시대에는 암막새의 출토량이 매우 적다. 여기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졌으며 다시 중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구동 유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주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은 고식연화문수막새가 하나의 건물지에서 다량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발굴된 조사대상지는 바다와 강이 접하고 있어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태화강과 동천의 하류에 형성된 넓은 충적지의 중심에 독립된 구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을 조망하기 유리한 입지조건이다. 그래서 반구동유적은 고신라시대부터 경주로 갈 수 있는 항구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I-1호 건물지는 항구의 배후시설로 고신라시대의 관청으로 생각된다. 이런 입지조건 때문에 이 유적에서는 고신라 부터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구와 유물이 다량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유구로는 목책, 고려시대에는 토성, 조선시대에는 구, 수혈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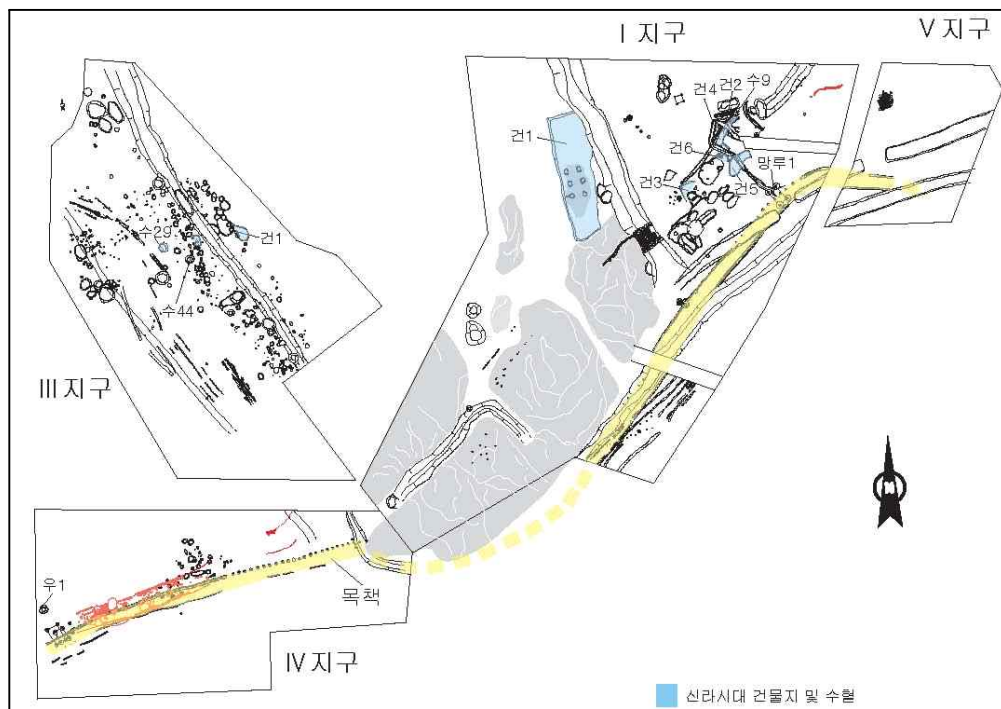


그림 9. 반구동유적 유구배치도(1/2,000)



그림 10.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전경



그림 11.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초석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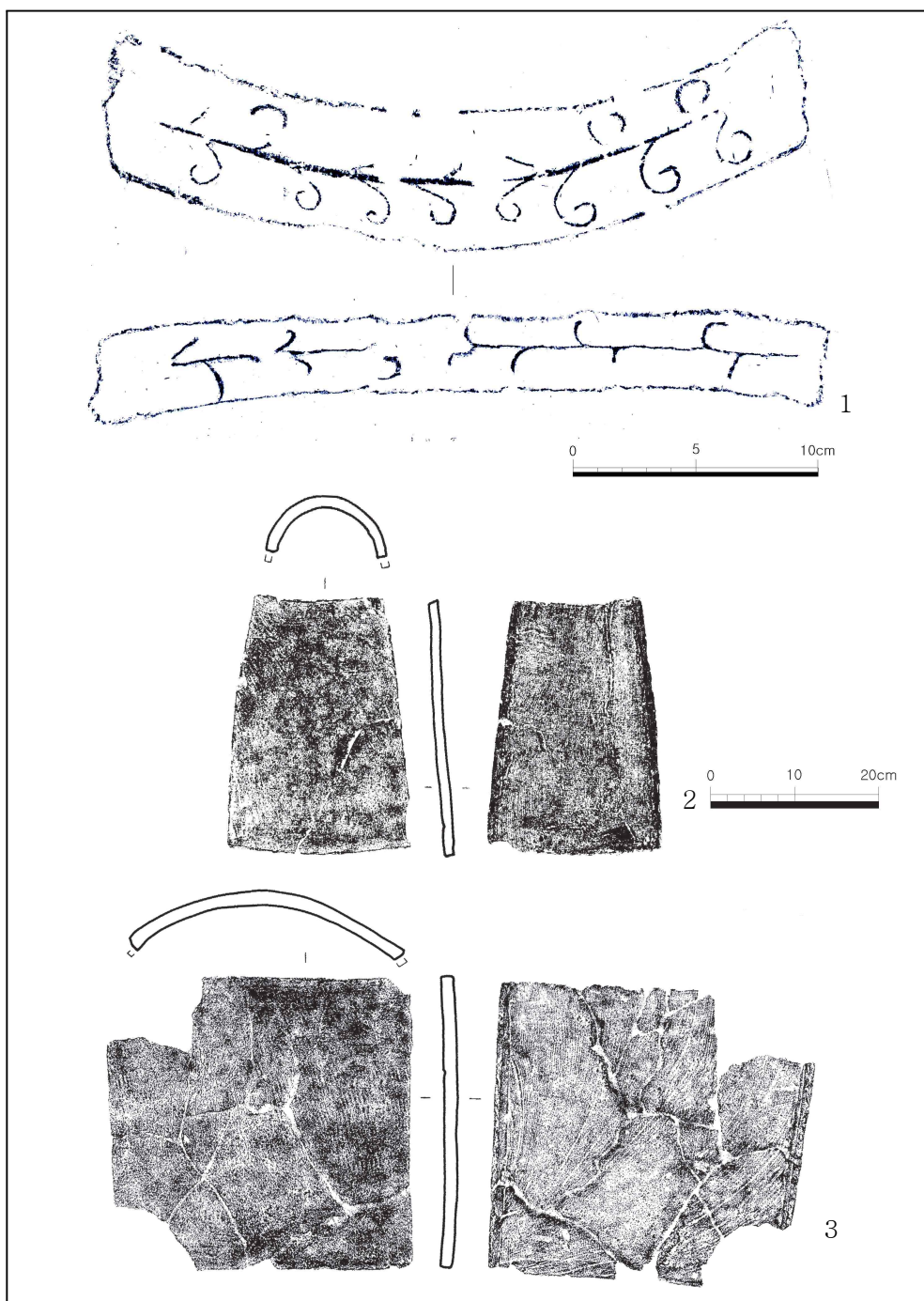


그림 12. 울산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 공반유물 (1: 암막새, 2: 수키와, 3: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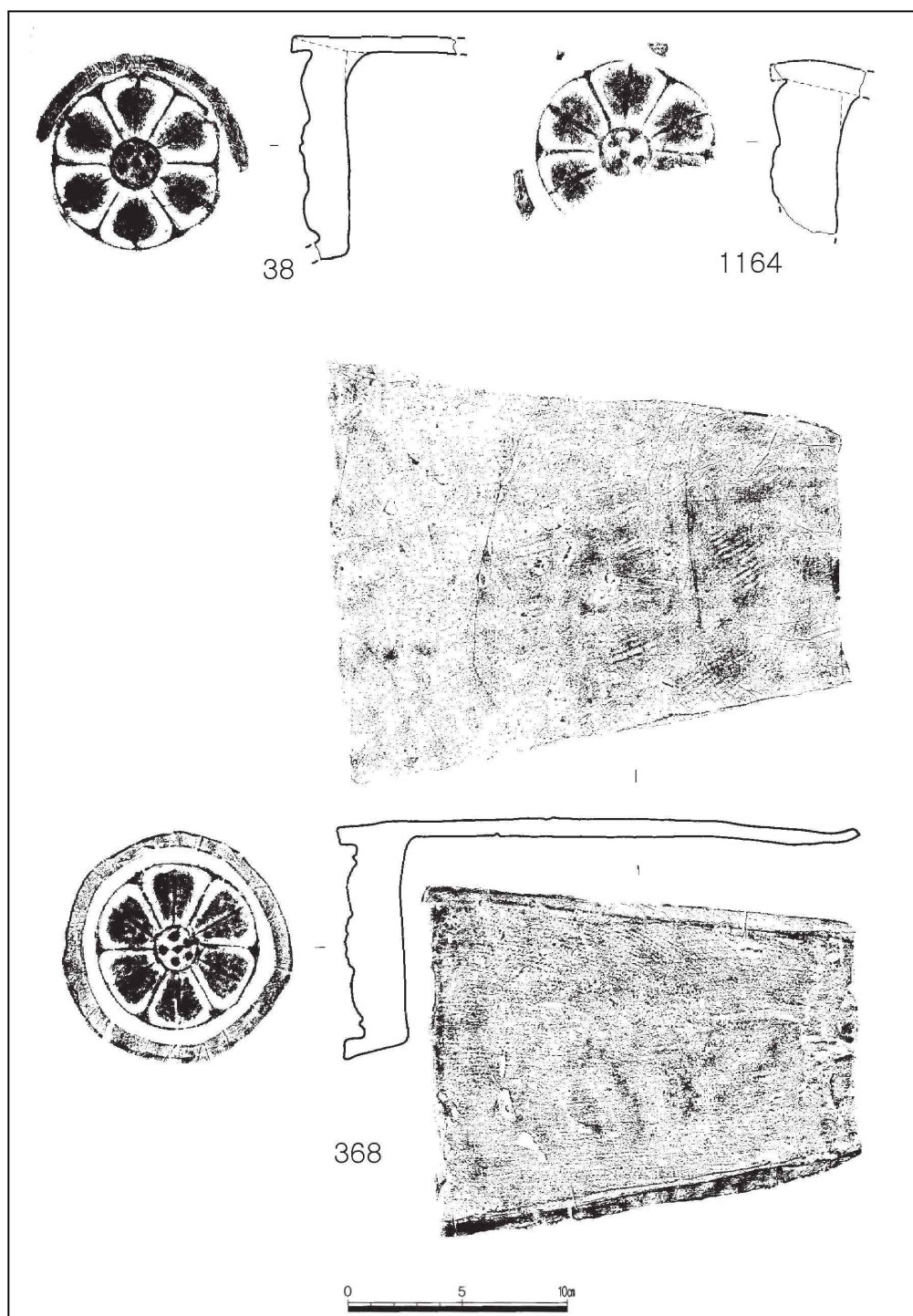


그림 13.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1(번호는 보고서의 유물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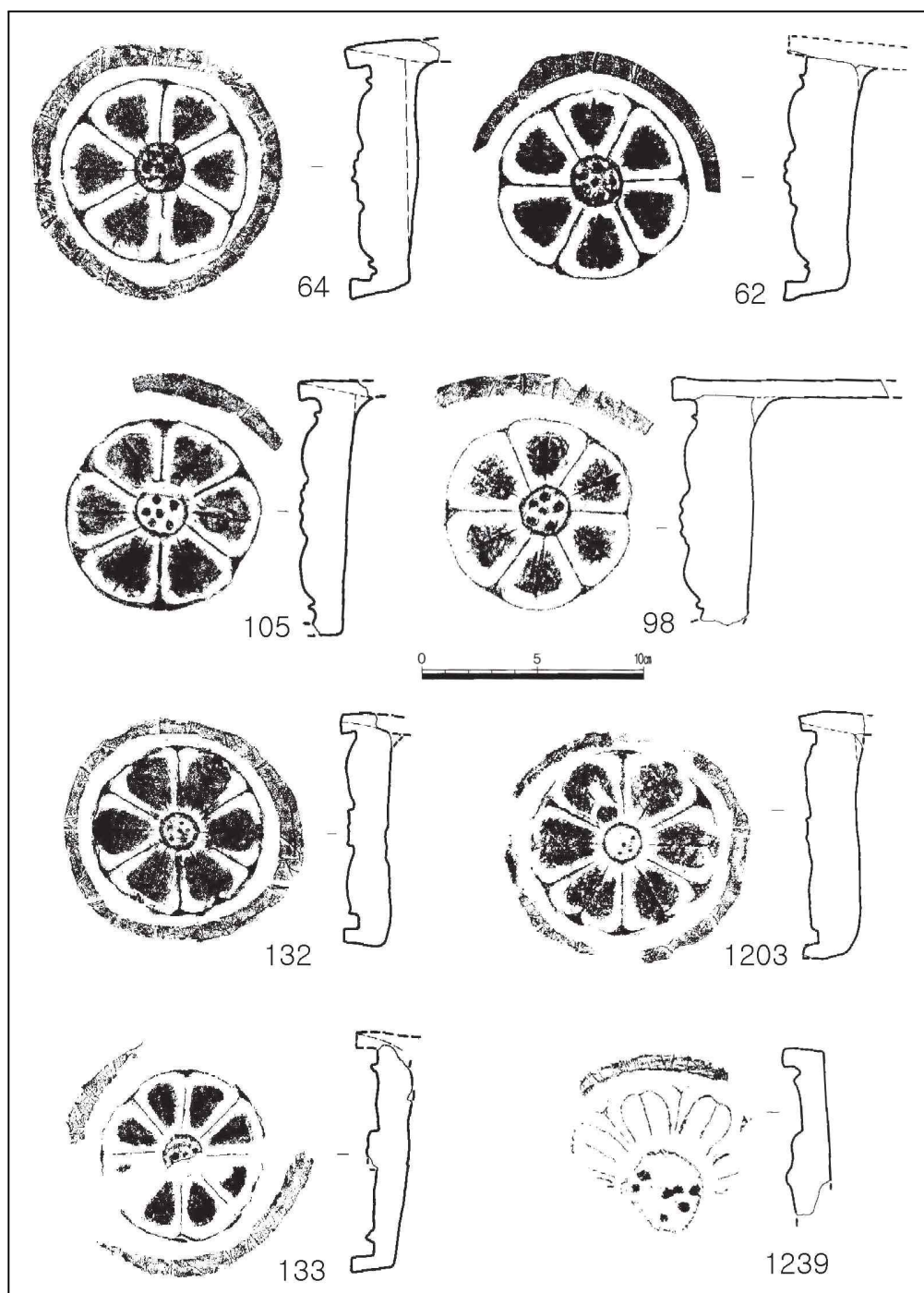


그림 14.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2(번호는 보고서의 유물번호)

2) 울산 반구동 토성지<sup>17)</sup> [그림 15, 표 2]

이 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90-2번지 일대에 있으며 울산 반구동유적<sup>18)</sup> 동쪽 구릉에 있다.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1991년 울산시 반구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토성을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토성 기하단의 퇴적층에서 건물지 일부가 남아 있었으며 여기서 고신라시대 기와들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반구동유적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같은 성격의 유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라시대의 기와는 아니지만 “竹六寺”라는 사찰명의 기와편이 출토되어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서는 6점의 고식연화문수막새를 소개하고 있으며 크게 2형식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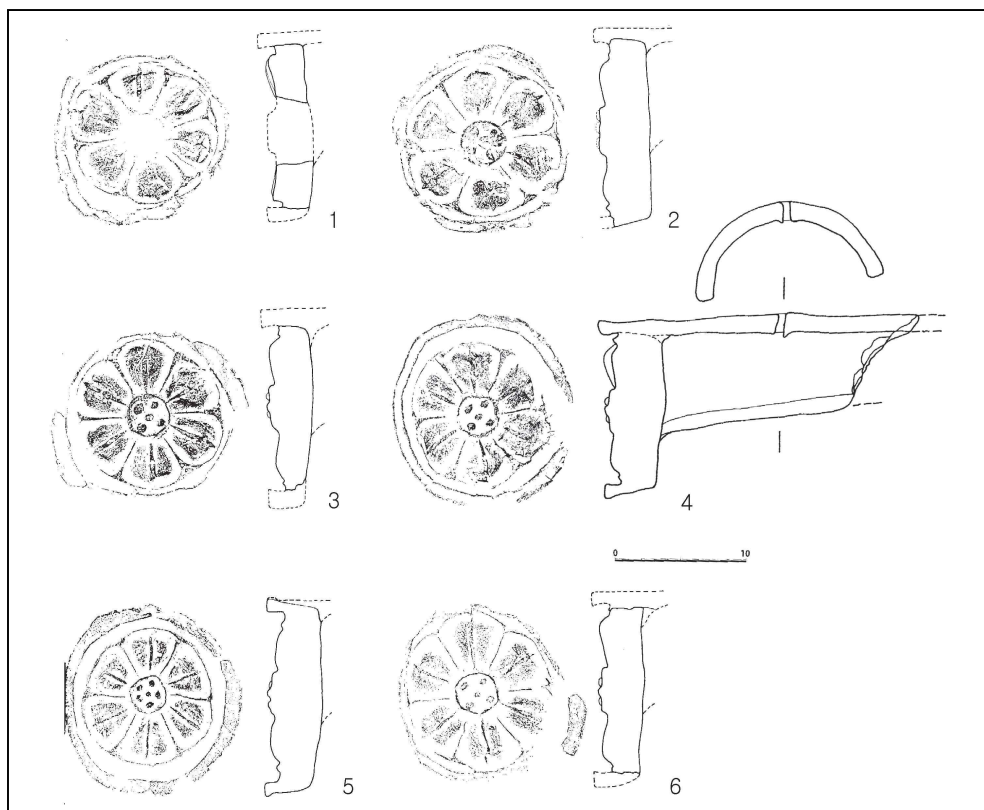


그림 15. 울산 반구동토성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17) , 「蔚山 伴鷗洞 土城址」 『考古歷史學志』 第八輯, pp. 19~83, 1992.

18)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앞의 책』, 2009.

| 도<br>면<br>번<br>호 | 드림부 문양 |   |     |   |    |    |    |    |   |    |     |    |   |   |   |   | 접합<br>기법 | 크기 | 그림  |          |      |
|------------------|--------|---|-----|---|----|----|----|----|---|----|-----|----|---|---|---|---|----------|----|-----|----------|------|
|                  | 연잎     |   |     |   |    |    | 자방 |    |   |    | 사이잎 |    |   |   |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 능선 |    | 형태 |   | 원권 |     | 모양 |   |   |   |   |          |    |     | 좌우<br>연결 |      |
|                  | 단      | 복 | 6   | 8 | 10 | 유  | 무  | 돌  | 평 | 유  | 무   | A  | B | C | D | E |          |    |     | a        | b    |
| 1                | ○      |   | ○   |   |    | ○  |    |    |   |    |     | ○  |   |   |   |   |          | ○  | A-1 | -        | 16-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        | 16-2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        | 16-3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13.4     | 16-4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C-1 | -        | 16-5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        | 16-6 |

표 2. 울산 반구동토성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3) 울산 양수정유적<sup>19)</sup> [그림 16, 표 3]

조사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양수정 일원으로 대곡댐 수몰지구의 상류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천전리각석과 반고사지가 위치해 있다. 조사결과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3동, 기와가마 1기, 축대 3개소, 석렬 1기, 집석유구 3기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제철과 관련된 슬래그 분포지역 1개소 등 모두 12기가 확인되었다. 고식연화문수막새는 건물지 1호에서 1점, 건물지 3호에서 3점, 축대 3호에서 1점으로 총 5점이 출토되었다.

19) , 『蔚山 대밀 · 兩水亭 · 上三亭 · 三亭里遺蹟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5次 發掘調査-』,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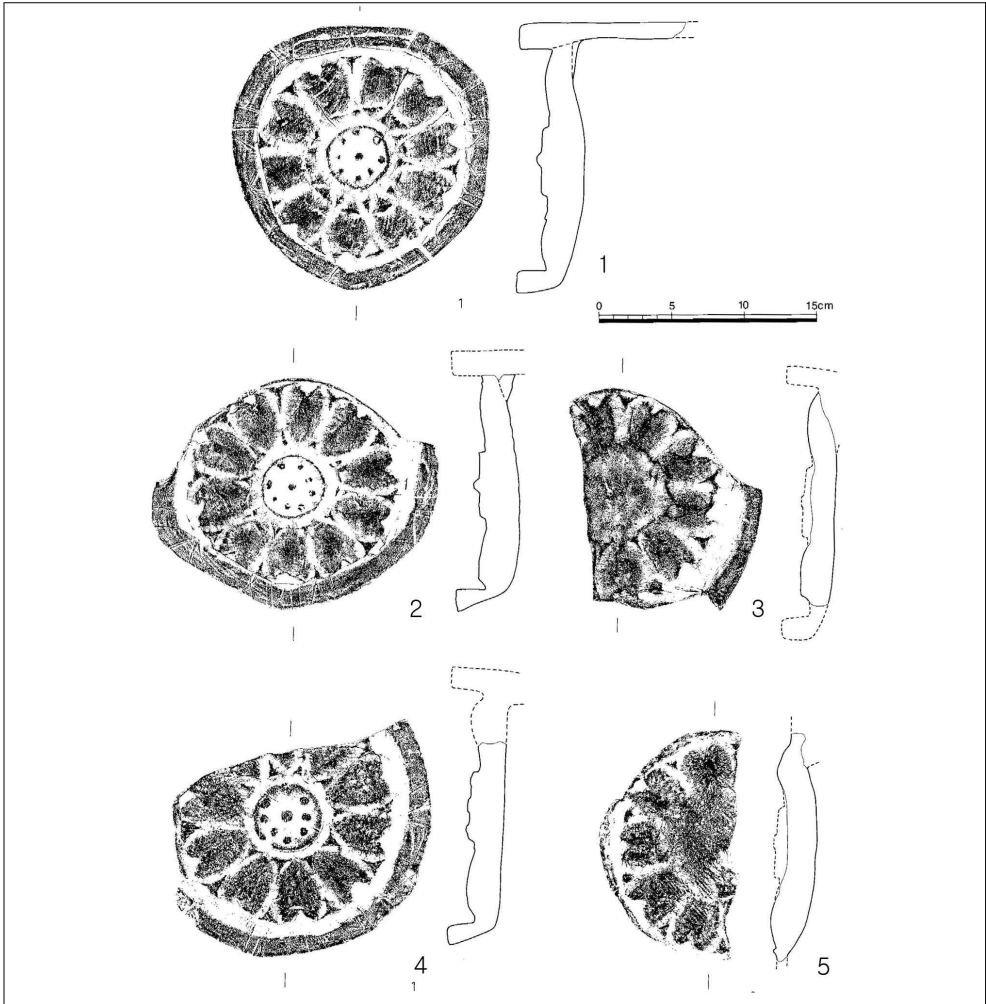


그림 16. 울산 양수정유적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도<br>면<br>번<br>호 | 드림부 문양 |   |     |    |   |    |    |    |   |    |     |    |   |   |   |   | 접합<br>기법 | 크기  | 그림     |          |  |
|------------------|--------|---|-----|----|---|----|----|----|---|----|-----|----|---|---|---|---|----------|-----|--------|----------|--|
|                  | 연잎     |   |     |    |   |    | 자방 |    |   |    | 사이잎 |    |   |   |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 능선 |    | 형태 |   | 원권 |     | 모양 |   |   |   |   |          |     |        | 좌우<br>연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                | 복      | 6 | 8   | 10 | 유 | 무  | 돌  | 평  | 유 | 무  | A   | B  | C | D | E | a | b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18.5   | 17-1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A-1 | 18.8   | 17-2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 17-3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 17-4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 17-5     |  |

표 3. 울산 양수정유적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4) 울산 입암리사지 [그림 17, 표 4]

입암리사지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622-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완만한 구릉에 해당되는 지형이다.

위치적으로 입암리는 경주, 울산, 언양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다. 일본강점기에 이곳에서 신라시대의 연화문수막새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sup>20)</sup>. 지금도 고신라시대의 기와편들이 지표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확인된 고식연화문수막새로는 6점이 소개되었다<sup>21)</sup>.



그림 17. 울산 입암리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20) , 「앞의논문」, 2001.

21) 김동현 외,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6.

國立慶州博物館, 『菊隱 李養路 蒐集文化財』, 1987.

| 도<br>면<br>번<br>호 | 드림부 문양 |   |     |   |    |    |    |    |   |    |     |    |   |   |   |   |          | 접합<br>기법 | 크기  | 그림     |      |
|------------------|--------|---|-----|---|----|----|----|----|---|----|-----|----|---|---|---|---|----------|----------|-----|--------|------|
|                  | 연잎     |   |     |   |    |    | 자방 |    |   |    | 사이잎 |    |   |   |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 능선 |    | 형태 |   | 원권 |     | 모양 |   |   |   |   | 좌우<br>연결 |          |     |        |      |
|                  | 단      | 복 | 6   | 8 | 10 | 유  | 무  | 돌  | 평 | 유  | 무   | A  | B | C | D | E | a        |          |     |        | b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 18-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I-1 | 15.9   | 18-2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I-1 | 15.0   | 18-3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 18-4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5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 18-6 |

표 4. 울산 범서읍 입암리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5) 울산 중산동사지<sup>22)</sup> [그림 18·19, 표 5]

울산시 북구 중산동 735-1번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가 중산동사지로 추정되는 곳이며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7번국도에 인접해 있다. 이곳에 절터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구전으로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은 경작지와 주택지로 개발되어 건물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735-1번지 일대에만 기와편이 분포하고 있다.

이 부근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와 전돌은 도록이나 논문을 통해 소개되어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등에 소장된 것 등을 비롯하여 개인소장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양인 주연이 높고 연주문이 없으며 연잎은 볼륨감이 있는 것, 연잎이 복엽인 것 2점이 출토되었다.

현재는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지만, 이전에 이런 전돌과 연화문수막새가 이 부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전답이 있는 절터로 추정된다.

<sup>22)</sup> ,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앞의 책』, 2000  
金有植, 「앞의논문」, 2001.  
22) 井內古文化研究室, 「앞의 책」, 1978, p.57.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앞의 책」, 2000,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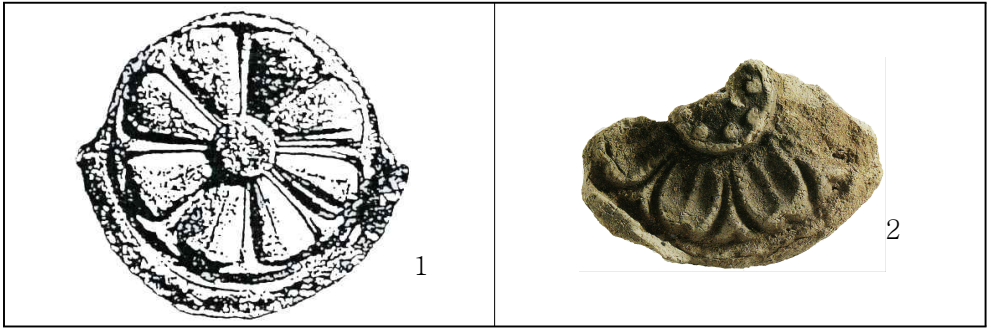


그림 18.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도<br>면<br>번<br>호 | 드림부 문양 |   |     |   |    |    |    |    |   |    |     |    |   |   |   |   | 접합<br>기법 | 크기 | 그림 |           |      |
|------------------|--------|---|-----|---|----|----|----|----|---|----|-----|----|---|---|---|---|----------|----|----|-----------|------|
|                  | 연잎     |   |     |   |    |    | 자방 |    |   |    | 사이잎 |    |   |   |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 능선 |    | 형태 |   | 원권 |     | 모양 |   |   |   |   |          |    |    | 좌우<br>연결  |      |
|                  | 단      | 복 | 6   | 8 | 10 | 유  | 무  | 돌  | 평 | 유  | 무   | A  | B | C | D | E |          |    |    | a         | b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15.<br>5 | 19-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

표 5.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           |
|----------------------------------------|-----------|
|                                        |           |
| 『新羅古瓦の研究』                              | 『新羅古瓦の研究』 |
|                                        |           |
| 울산대학교박물관 소장(울산대학교박물관, 『遺蹟과 遺物』, 2006.) | 『新羅古瓦の研究』 |
|                                        |           |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                     |           |

그림 19. 울산 북구 중산동사지에서 출토된 전돌

6) 취선사지 [그림 20-1, 표 6]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다. 1969년 대암댐 건설 때문에 수몰되었다.

이 주변은 완만한 구릉상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 태화강이, 배후에는 문수산이 입지하여 유적 입지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화강을 따라 이어진 지방도를 따라 고대에도 교통로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취선사지는 울산의 불교 성지인 문수산 자락에 있고 문수산에는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에 기록된 혁목사가 있으며 망해사지, 영축사지, 청송사지, 문수사 등의 고신라~통일신라시대의 절터가 확인되는 곳이다. 『삼국유사』에 해공왕 때에 취선사에서 김유신의 명복을 빌었다는 기록<sup>23)</sup>이 나온다. 사지에는 불상과 석물의 잔편, 기와편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수몰되기 전 출토된 기와나 유적에 대한 일화를 종합해 보면 신라시대 창건되고, 『新羅의 기와』에 취선사에서 출토되었다는 단판연화문수막새가 1점 소개되어 있다<sup>24)</sup>. 간월사, 석남사, 언양읍성의 4개 문루와 같이 임진왜란 때 병화 때문에 소실된 사찰로 추정된다.

7) 기타 [그림 20-2, 표6]

『新羅의 기와』에 반구대 부근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1점 소개되어 있다<sup>25)</sup>. 반구대 부근은 현재 국도 35호선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산과 언양에서 경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고신라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두동면 천전리 산 207-8번지에 있는 천전리각석에는 신라인들에 의해 새겨진 금석문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라 화랑들의 이름과 신라 고승들의 이름을 많이 찾아낼 수 있으며 법흥왕과 관련된 기록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6~7세기에 이곳에 왕족들과 화랑들이 다녀간 것을 알 수 있다.

천전리각석 인근에는 원효대사(617~686)가 수행한 반고사<sup>26)</sup>가 있다. 반고사지

23) 『三國遺事』 권1, 紀異1 未鄒王 竹葉軍條

…公復努力如前。三請三不許。旋風乃還。王聞之懼。乃遣工臣金敬信。就金公陵謝過焉。 公立功德寶田三十結于 鷲仙寺。以資冥福。寺乃金公討平壤後。植福所置故也。…

24) 김동현 외, 『앞의 책』, 1976.

25) 김동현 외, 『앞의 책』, 1976.

26) 『三國遺事』 권5, 避隱8 朗智乘雲, 普賢樹條

는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11-1번지 일원에 있으며 대곡리사지로도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석탑에 해당하는 탑신과 옥개석이 흩어져 있으며 탑신의 4면에 사천왕상이 새겨진 탑신과 석조여래좌상이 현재 부산대학교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신라 초기인 2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의 고신라시대 고분인 하삼정 고분군<sup>27)</sup>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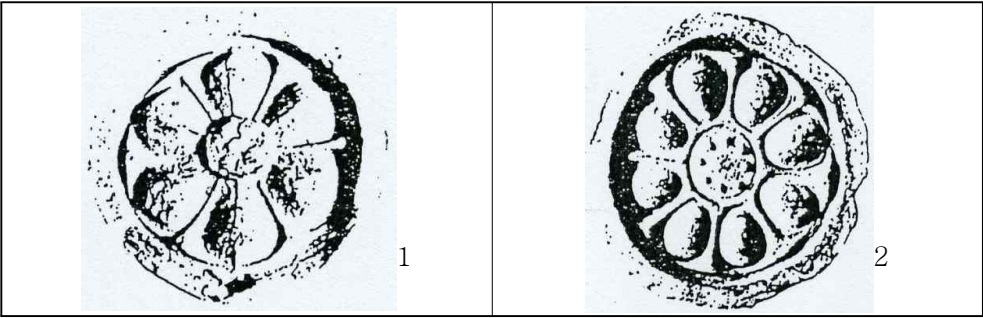


그림 20. 울산 취선사지(1), 반구대 부근(2)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 도<br>면<br>번<br>호 | 드림부 문양 |   |     |   |    |    |    |    |   |    |     |    |   |   |   |   | 접합<br>기법 | 크기 | 그림 |          |      |
|------------------|--------|---|-----|---|----|----|----|----|---|----|-----|----|---|---|---|---|----------|----|----|----------|------|
|                  | 연잎     |   |     |   |    |    | 자방 |    |   |    | 사이잎 |    |   |   |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 능선 |    | 형태 |   | 원권 |     | 모양 |   |   |   |   |          |    |    | 좌우<br>연결 |      |
|                  | 단      | 복 | 6   | 8 | 10 | 유  | 무  | 돌  | 평 | 유  | 무   | A  | B | C | D | E |          |    |    | a        | b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1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 |

표 6. 울산 취선사지, 반구대 부근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분류표

... 。常往謁智。令著初章觀文及安身事心論。曉撰訖。使隱士文善奉書馳達。其篇尾述  
偈云。西谷沙彌稽首禮。東岳上德高巖前(礪高在靈鷲之西北。故西谷沙彌乃自謂也)吹以細塵補鷲  
岳。飛以微滴投龍淵(云云)...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대곡댐 편입부지내 4차 발굴조사 하삼정 고분군 4차 지도위원회 자  
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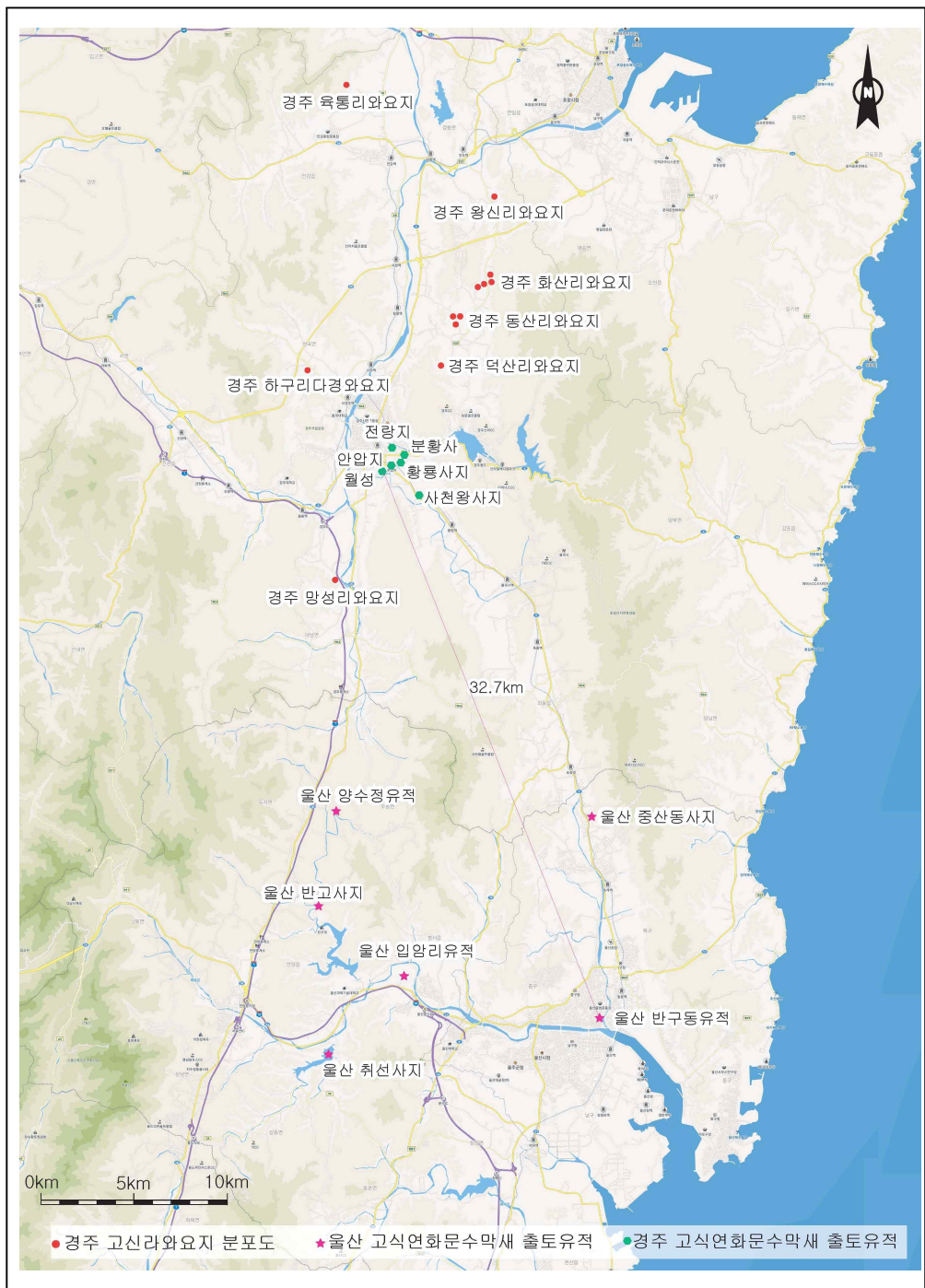


그림 21. 울산·경주 고식연화문수막새 출토유적

### 3. 형식분류

울산지역의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대상으로 문양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同范瓦에서도 다양한 제작기법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28)</sup>. 반구동유적을 제외하고 직접 실견하지 못하였지만,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속성은 드림부의 문양이었다. 반구동유적과 울산 양수정유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표채집 유물이고 출토 수량이 적지만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두 포함했다. 문양의 형태를 중요시하여 앞서 살펴본 다양한 속성을 참고 했을 때 총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 (1) I 형식

연잎의 배치는 단판이며 연잎의 수는 6엽, 연잎에 능선이 있으며 자방은 돌출된 형태이다. 사이잎의 모양, 연자 수, 연잎의 모양에 따라 4가지로 세분된다.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 입암리유적, 울산 취선사에서 265점이 출토되었다.

##### ① I-1 [그림 22]

117점으로 6엽의 단판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子房 내에서는 1+4顆의 蓮子를 두고 있다. 연잎은 중앙에 능선이 확인되며 볼륨감 있게 솟아나 있으며 끝은 자방에 붙어 있다. 사이 잎은 T자형이며 끝은 자방까지 연결되어 있다. 周緣은 1~1.5cm 높이로 돌출하였으



며, 아무런 장식문양을 두지 않고 있다. 막 그림 22. 고식연화문수막새 I-1 새부와 수키와의 접합방식은 A-1, A-2형식과 C-1형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직경은 13.5cm~15.5cm이며 악면두께는 2.6cm~4.5cm 내외이며 3.0~3.5cm 사이의 분포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도표 3] .

28) 이것은 동일시기의 동일공방 중에서도 만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범을 계속 사용하면서 시간 내에 미묘한 연대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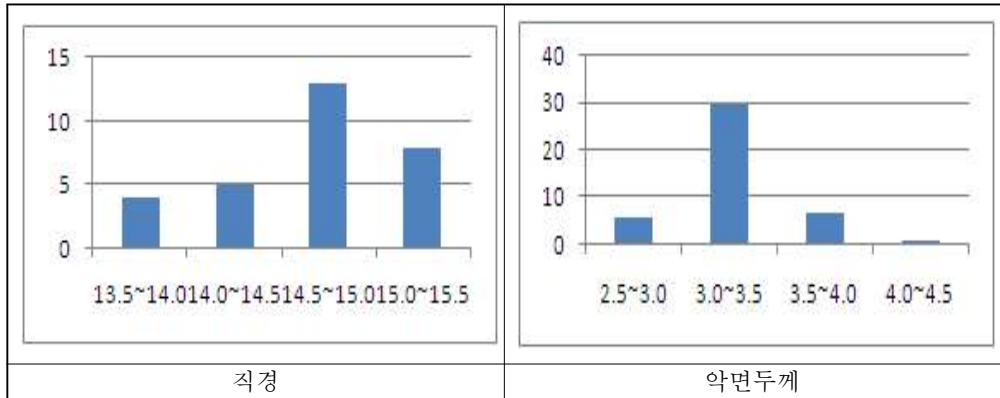


도표 3. I-1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표

## ② I-2 [그림 23]

139점으로 연잎의 배치는 단판이며 6엽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子房의 형태는 원반형으로 기저부에서 상단까지 0.4cm가량 돌출되어 있다. 子房 내에서는 1+5顆의 蓮子를 두고 있으며, 연잎의 중앙에 능선을 돌게 표현하였고, 연잎은 I 식보다는 편평하다. 연잎 사이에는 T자형으로 돌출된 사이 잎을 배치하였고 각 사이 잎의 좌우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이 잎 끝 부분은 자방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림 23. 고식연화문수막새 I-2

周緣은 0.9~1.4cm 높이로 돌출하였으며, 아무런 장식문양을 두지 않고 있다.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방식은 A-1, A-2형식, B형식, C-1형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직경은 14.2cm~16.1cm이며 약면두께는 2.5cm~4.5cm 내외이며 3.0~3.5cm 사이의 분포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도표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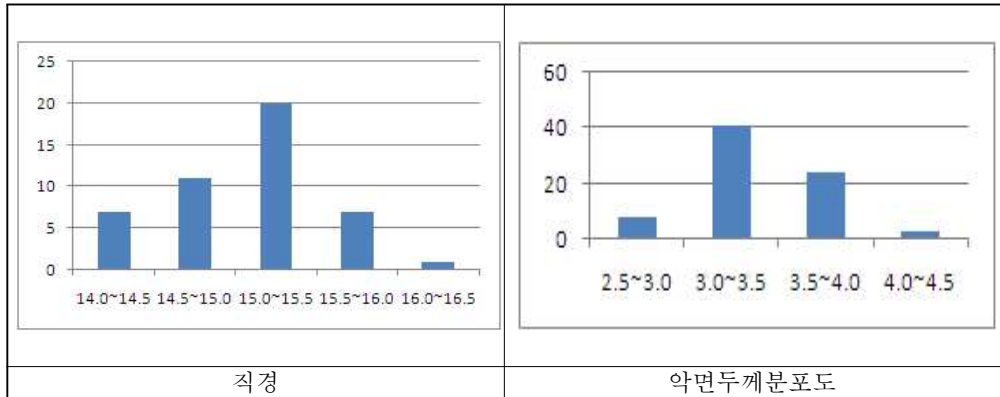


도표 4. I-2 고식연화문수막새 속성표

### ③ I-3 [그림 24]

8점으로 6엽의 단판연화문을 배치하였다. 子房의 형태는 원반형으로 기저부에서 상단까지 0.6cm가량 돌출되어 있고 가는 권선이 돌려져 있다. 子房 내에서는 1+5顆의 蓮子를 두고 있다. 연잎은 중앙에 능선이 확인되며 볼륨감 있게 솟아나 있다. 연잎은 끝은 융기하여 반전을 이룬다. 사이 잎의 머리 쪽은 삼각뿔 상으로 돌출되어 있고 꼬리 쪽은 자방까지 연결되어 있다. 제작기법은 C-3형이 확인된다. 연잎 끝이 융기하여 반전을 이루는 백제식 기와와 매우 유사하나 자방이 작고 원권이 돌아간다.



그림 24. 고식연화문수막새 I-3

### ④ I-4 [그림 25]

1점 출토되었다. 1+4顆의 蓮子를 두고 있다. 연잎보다 자방의 크기가 크다. 사이 잎은 T자형이며 자방까지 연결되어 있다.

周緣은 1.5cm 돌출되어 일반적인 막새보다 주연부를 매우 높게 처리하였다. 크기가



그림 25. 고식연화문수막새 I-4

11.3cm로 보통의 막새보다 작다.

(2) II 형식

연잎의 배치는 단판이며 연잎의 수는 8엽, 연잎에 능선이 있으며 자방은 돌출된 형태와 평면형태가 같이 나타난다. 중산동사지와 입암리사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① II-1 [그림 26]

1점으로 주연부 1/2가량이 결실되었다. 8엽의 단판연화문수막새로 연잎은 삼각형에 가깝고 능선이 연잎 끝보다 밖으로 나왔다. 자방은 원반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연자수는 알 수 없다. 직경은 약 1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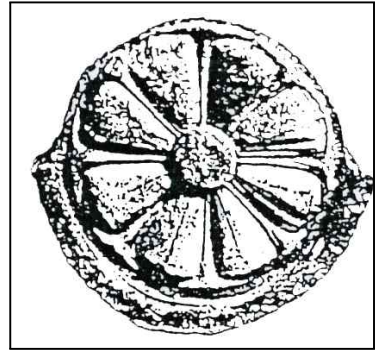


그림 26. 고식연화문수막새 II-1

② II-2 [그림 27]

1점으로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8엽의 단판연화문수막새로 자방은 권선이 돌려져 있으며 평면적이고 연자가 매우 돌출되고 1+8과의 蓮子를 두고 있다. 사이잎은 T자형이며 머리부분이 삼각형으로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다. 사이잎의 확대로 연잎이 세장해진 모양이다. 이러한 형식의 수막새는 경주 부근의 월성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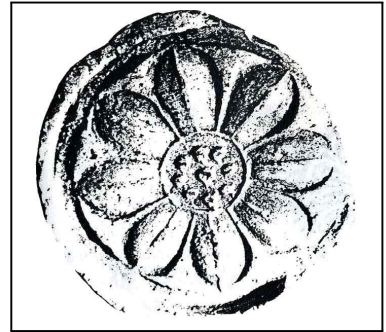


그림 27. 고식연화문수막새 II-2

(3) III 형식

연잎의 배치는 단판이며 연잎의 수는 8엽, 10엽으로 연잎에 능선이 없으며 평면적이다. 자방은 돌출된 형태와 평면형태가 같이 나타난다.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 양수정유적, 반구대 부근에서 9점이 출토되었다.

29) ,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앞의 책」, 2000, p.17.

① Ⅲ-1 [그림 28]

3점으로 8엽의 단판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잎은 긴 역삼각형으로 볼륨감이 없으며 거의 평평하고 또한 중앙에 능선이 없다. 子房의 형태는 원반형으로 기저부에서 상단까지 0.5cm가량 돌출되어 있다. 子房 내에서는 자방의 일부가 결실되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잔존상태로 보아 1+5顆의 蓮子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잎은 T자형이며 머리부분이 접혀 있다. 제작기법은 C-3형이 확인된다. 직경은 14.5cm이며 악면두께는 2.8cm이다.



그림 28. 고식연화문수막새 Ⅲ-1

② Ⅲ-2 [그림 29]

1점으로 8엽의 단판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잎은 자방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길고 둥근 계란형으로 볼륨감이 약하다. 자방은 연잎의 내측보다 낮고 평면적이며 1+8과의 작은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사이 잎은 삼각형으로 양감이 매우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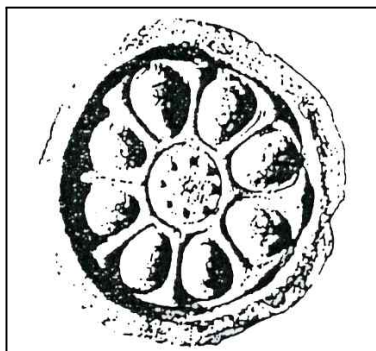


그림 29. 고식연화문수막새 Ⅲ-2

③ Ⅲ-3 [그림 30]

5점으로 10엽의 단판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연잎은 자방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긴 하트 모양으로 평면적이다. 자방은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1+8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사이잎은 역삼각형이다. IV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작기법에 있어서 자방 부분에 흠을 덧댄 흔적이 확인된다. 주연부 외면과 배면에 박자흔이 남아 있다.



그림 30. 고식연화문수막새 Ⅲ-3

직경은 울산지역에서 현재까지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 중 가장 큰 것으로 18.5~19.2cm이며 악면두께는 2.3~2.8cm이다.

(4) IV형식 [그림 31]

3점으로 울산 반구동유적, 울산 입암리사지, 울산 중산동사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1/4가량 남아 있지만 8엽의 단판연화문으로 추정한다. 자방의 형태는 매우 돌출되어 있으며 1+8顆의 연자를 두고 있다. 연잎은 끝단이 ‘M’형으로 내곡되었고, 내부가 오목하고 중앙 능선에 의해 꽃잎이 양분된 복엽의 초기형태이며 끝단을 살짝 들어 올린 형태이다. 사이 잎은 Y자형이다.



그림 31. 고식연화문수막새 IV

이상과 같이 각 유적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모두 4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연잎의 수와 모양에 따라 정리하면 [표 7] 과 같다.

| 형식  | 연잎 |   |     |       |    |   |
|-----|----|---|-----|-------|----|---|
|     | 배치 |   | 연잎수 |       | 능선 |   |
|     | 단  | 복 | 6   | 8, 10 | 유  | 무 |
| I   |    |   |     |       |    |   |
| II  |    |   |     |       |    |   |
| III |    |   |     |       |    |   |
| IV  |    |   |     |       |    |   |

표 7. 울산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형식분류표

### Ⅲ. 울산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편년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 278점을 대상으로 4형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형식분류를 기초로 앞서 살펴본 속성 등을 참고하여 3단계로 설정하였다.

#### 1. 1단계

연잎은 단판이며 6엽으로 능선이 있는 연화문수막새이다. I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연잎은 다음 단계에서 확인되는 연잎보다 볼륨감이 있으며 본 논문의 연화문수막새중 가장 전형적인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방의 형태는 돌출형이며 원권이 돌려져 있는 것과 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혼용되어 나오며 1+4과 1+5과의 연자가 배치되어 있다. 사이잎은 ‘T’자형과 역삼각형 사이잎이 나타난다.

1단계의 수막새에는 수키와까지 남아있는 것이 반구동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여기에 부착된 수키와를 보았을 때 외면에 단판타날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의하면 평기와의 외면에서 관찰되는 타날문양이 단판→중판→장판의 순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sup>30)</sup>. 이를 통해 볼 때 고신라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신라기와보다 상대적으로 편년연구가 진행된 토기의 편년 안을 참고하여 보았다.

반구동유적 I-1호 건물지에서 I-1, I-2, I-3, III-1형식의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I-1, I-2형식의 수막새의 비율이 90% 이상 차지하며 건물축조 당시 올렸던 기와로 보이며 이와 공반된 토기들은 각각의 2단 투창 고배에서 퇴화한 형태로 소형화된 투창이 2단, 또는 1단 뚫려 있는 단각고배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그림 32] 이것은 긴 대각을

30) 서오선, 『韓國平瓦文様の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이인숙,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조성운, 『앞의 논문』, 2002.

최태선,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對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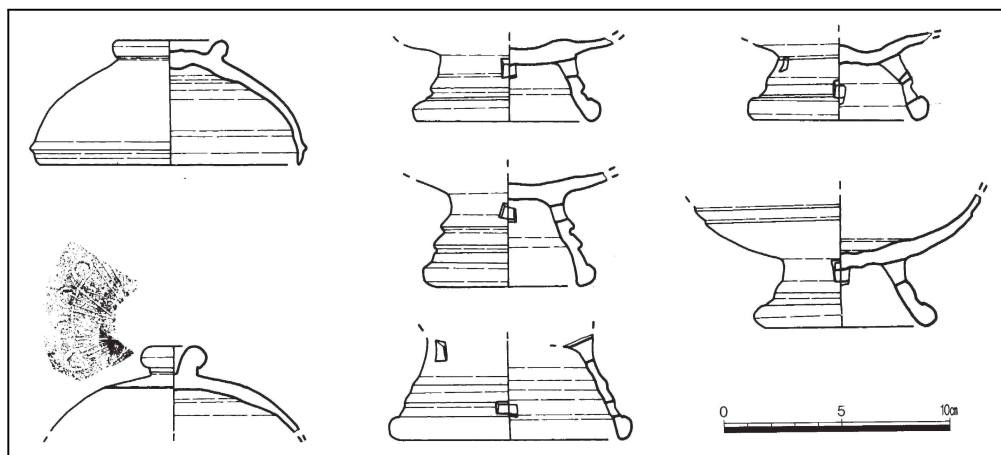


그림 32. 울산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 공반 출토 토기

가진 고배류가 유행하던 이전시기의 토기양식에서 새로운 토기양식으로 변화를 알려주는 기형이다. 시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제작기법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까지 월성해자, 손곡동 유적에서 분할절지법<sup>32)</sup>은 확인되지 않는다. 분할절지법은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의해 가장 이른 수막새의 제작기법으로 보고 있다. 이 제작기법으로 만든 수막새의 문양은 백제 수막새 형태인 연잎 끝에 원형돌기가 배치된 일명 “백제계 수막새”에서만 확인된다 [그림 33]. 그리고 이것이 출토되는 유적은 월성해자<sup>33)</sup>, 손곡동 물천리유적 C-I 지구<sup>34)</sup>에서 소량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수막새로 보고 있으며 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sup>35)</sup>. 1단계에 이런 문양과 제작기법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3은 백제계

31)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반구동유적』, 2009. pp.340~345

32) 주연까지 완성된 수막새 배면에 원통으로 분리되지 않은 통기와를 접합시킨 후 필요 없는 1/2을 잘라내는 접합기법이다.

3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Ⅱ』, 2006.

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2004.

35) 趙成允, 「新羅 古式 蓮花文수막새의 製作時期에 대하여」, 『釜大史學』 第三十輯, 釜山大學校史學會,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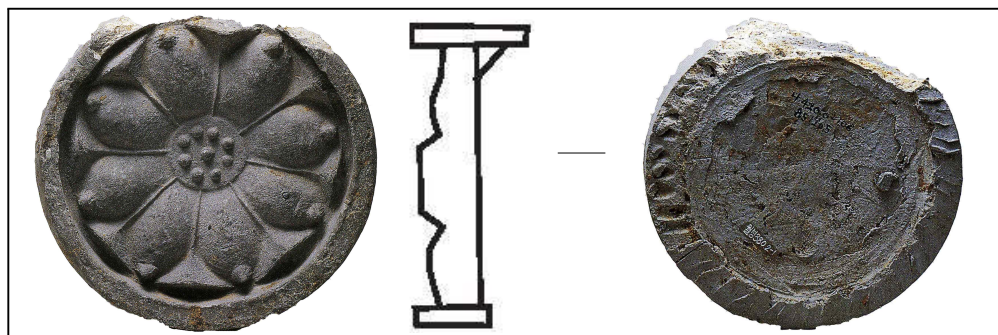


그림 33. 분할절지법 예(월성해자 출토유물)

수막새의 문양과 비슷하나 자방이 축소된 것으로 보아 백제계 수막새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된 분황사<sup>36)</sup>의 연화문수막새와 비교하였을 때 1단계의 고식연화문수막새와 동형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런 특징으로 보았을 때 1단계는 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2단계

Ⅱ·Ⅲ형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판이지만 연잎의 수가 8엽, 10엽으로 늘어나면서 연잎이 세장해지고 볼륨감이 없어지게 된다. 능선도 앞의 단계에서 이어오다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자방도 평면형태의 자방이 나타나며 돌출형과 같이 나타난다. 1단계 고식연화문수막새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형적인 고신라 수막새 형태를 기본으로 자방의 변화, 연잎의 수 증가, 연잎 형태 변화를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단판연화문을 제작한 시기로 이런 다양한 변화의 시도는 후에 이루어진 통일신라의 화려한 수막새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sup>37)</sup>.

Ⅲ-2는 용강동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同形の 수막새로 볼 수 있으며 용강동 고분 출토 막새는 인화문토기와 함께 부장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인화문토기는 7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은 7세기 중엽쯤에

3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2005.

37) 이선희, 『月城塚字 出土 수막새의 製作技法과 編年 研究 -古式 수막새를 中心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막새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sup>38)</sup>.

이런 특징으로 보았을 때 2단계는 1단계보다 늦은 7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 3. 3단계

Ⅳ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Ⅳ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식수막새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선 연잎에서 중앙 능선에 의해 꽃잎이 양분된 복엽의 형태이며 끝단을 살짝 들어 올렸다. 자방의 형태는 매우 돌출되어 있다. 이것은 앞단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瓦形의 발전이다. 이것은 고신라적인 와당형의 전통적인 기반위에서 새로 파급되고, 통일신라 직후에 출현한 새로운 고식와당형을 기반으로 한 신형식 와당형이 곧 바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는 통일 직전부터 직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단계별 출토량을 보면 1단계 해당하는 I 형식의 출토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반구동유적, 울산 입암리사지, 반구동토성지에서 I-1, I-2 형식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도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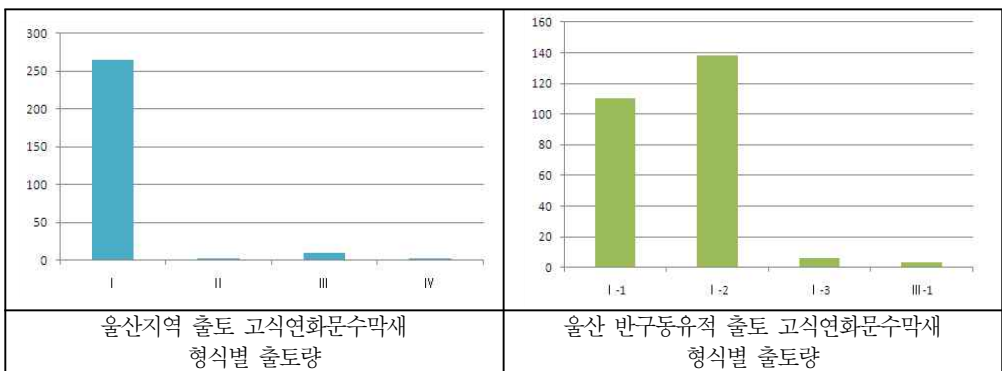


도표 5. 울산지역과 반구동유적 고식연화문수막새의 형식별 출토량

이것은 7세기 초에 가장 많은 건축물이 조영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이후 통일전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일부 보수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8) 이선희, 『앞의 논문』, 2006.

#### IV. 경주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의 비교

경주지역에서 기와가 언제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불교가 공인되고 곧 이어 홍륜사(544년), 황룡사(553년) 등의 큰 사찰들이 건립되는 6세기 중반부터는 활발한 造瓦活動이 본격화되어 갔다고 본다. 신라는 이때를 전후하여 고구려 및 백제의 영향을 받아 두 계통의 복합과정을 거치면서, 6세기 후반경에는 신라적인 瓦型을 개발하고, 7세기 전반부터는 독자적인 와당문양을 형성하기에 이른다<sup>39)</sup>.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백제계의 초기기와는 확인되지 않고 신라의 독자적인 와당문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7세기 전반의 수막새가 출토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월성, 재매정지, 전랑지, 황룡사지, 분황사, 홍륜사지, 영묘사지 등 통일 이전에 조성된 성곽이나 관아 및 寺址 등의 경주지역에서 왕경의 중심부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II장에서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278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경주지역과 同范이거나 同形の 기와가 대부분이다. 특히, I-1, I-2, II-2, III-2, IV형식에서 同范瓦가 확인된다. [그림34·35] .

여기서 말하는 동범이란 하나의 범에서 찍은 여러 점의 동일한 막새를 말한다. 동범와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수막새의 문양 및 각 문양의 사이즈, 문양에서 확인되는 와범에 의한 특징들, 수키와의 접합기법, 색상과 소성도 등의 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색상과 소성도는 와범에서 수막새가 제작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들이므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둔다. 또 동범와로 판단할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고신라시대에는 와범의 재료로 목재를 사용했는데 처음 사용할 때와 다르게 여러 번 사용하다보면 범이 훼손되게 되는데, 이런 훼손흔적 또한 동범와를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수막새와 同范이나 同形이라는 사실은 제작지까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재의 자료만으로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신라기와의 수급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수공업의 실상을 충분

39) 김성구, 안압지 출토 고식와당의 형식적 고찰, 『美術資料』 29, 國立中央博物館,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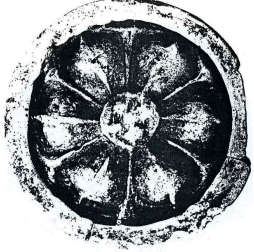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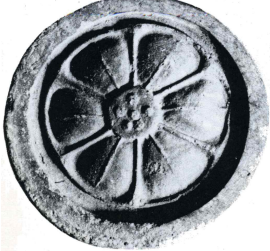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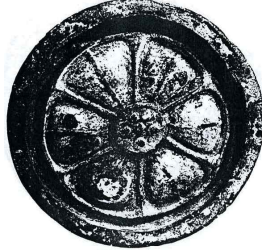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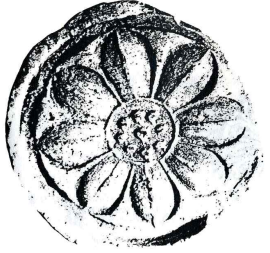
| 형식      | 울산출토                                                                                                | 경주출토                                                                                                                                                                                                                                                                                                                                                                                                                                                                                                                                                               |
|---------|-----------------------------------------------------------------------------------------------------|--------------------------------------------------------------------------------------------------------------------------------------------------------------------------------------------------------------------------------------------------------------------------------------------------------------------------------------------------------------------------------------------------------------------------------------------------------------------------------------------------------------------------------------------------------------------|
| I<br>1  |  <p>울산 반구동유적</p>   | <div>  <p>월성<br/>(『新羅瓦塼』 도30, p.25)</p> </div> <div>  <p>안압지<br/>(『朝鮮瓦塼 譜Ⅲ 百濟新羅1』 도273, p.54)</p> </div> <div>  <p>황룡사지<br/>(『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Ⅰ』 삽도 130, p.169)</p> </div> <div>  <p>분황사<br/>(『芬皇寺發掘調査報告書Ⅰ(遺物圖版)』 p.33)</p> </div> |
| I<br>2  |  <p>울산 반구동유적</p>  | <div>  <p>천북면 모아리<br/>(『新羅의古瓦塼』 도5, p.1)</p> </div> <div>  <p>황룡사지<br/>(『朝鮮瓦塼圖譜Ⅲ 百濟新羅1』 도265, p.52)</p> </div>                                                                                                                                                                                                                                                                                |
| II<br>2 |  <p>울산 입암리사지</p> | <div>  <p>안압지<br/>(『新羅瓦塼』 도14, p.18)</p> </div> <div>  <p>동천동<br/>(『新羅瓦塼』 도1389, p.415)</p> </div>                                                                                                                                                                                                                                                                                          |

그림 34. 울산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경주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비교(Ⅰ-1·Ⅰ-1·Ⅱ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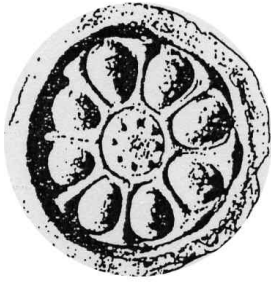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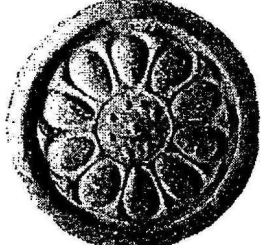
| 형식       | 울산출토                                                                                                | 경주출토                                                                                                                                                                                                                                                                                                                                                                                                                                                                                                                                                                 |
|----------|-----------------------------------------------------------------------------------------------------|----------------------------------------------------------------------------------------------------------------------------------------------------------------------------------------------------------------------------------------------------------------------------------------------------------------------------------------------------------------------------------------------------------------------------------------------------------------------------------------------------------------------------------------------------------------------|
| III<br>2 |  <p>울산 반구대부근</p>   | <div>  <p>월성<br/>( 월성해자발굴조사보고서II(고찰)』 p.42)</p> </div> <div>  <p>전랑지<br/>(『新羅瓦塼』 도235, p.73)</p> </div> <div>  <p>안압지<br/>(『新羅瓦塼』 도86, p.39)</p> </div> <div>  <p>용강동고분군 ( 월성해자<br/>출토 수막새의 제작기법과<br/>편년 연구』 p.106)</p> </div> |
| IV       |  <p>울산 입암리사지</p> | <div>  <p>안압지<br/>(『新羅瓦塼』 도96, p.41)</p> </div> <div>  <p>월성<br/>(『新羅瓦塼』 도37, p.27)</p> </div> <div>  <p>사천왕사지(국립경주박물관, '사천왕사' 특별전 유물)</p> </div>                                                                                                                                                            |

그림 35. 울산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경주지역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비교(III-2·IV형식)

히 이해하고 물품의 제작지와 출토지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40)</sup>.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기와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同范瓦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 몇 점 확인되었다. 이 유물들은 경주지역과 같은 瓦范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瓦范만을 가지고 와서 울산지역에서 생산한 것인지, 경주에서 만든 완성품을 가져온 것 인지이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는 고신라시대 와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고신라시대 와요지는 천북면 물천리<sup>41)</sup>, 천북면 동산리<sup>42)</sup>, 안강읍 육통리, 내남면 망성리<sup>43)</sup>, 현곡면 하구리다경<sup>44)</sup>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황룡사, 사천왕사지, 분황사 등의 출토유물과의 수급관계가 일부 밝혀진 바 있다<sup>45)</sup>.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황룡사, 사천왕사지, 분황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同范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I-2형식의 것과 同范으로 보이는 천북면 모아리의 출토지를 가지는 유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계측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사진으로 관찰하는 한 수막새 문양의 구성과 배치, 연잎의 형태, 연자의 배치와 개수, 자방 형태 등의 특징이 동일하기 때문에 同范瓦로 판단된다. 천북면 모아리 주변에는 많은 수의 신라시대 와요지가 확인되고 있는 지역으로 있다<sup>46)</sup>.

---

40) 김유식, 「7~8세기 新羅 기와의 需給」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2000.

41) 김유식, 「月城郡 川北面의 新羅窯址」, 『慶州史學』 3, 東國大學校 國史學科, 198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2004.

42) 김유식, 앞의 논문, 1983.

43)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塼에 대한 一考察-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塼을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86.

朴洪國,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塼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5, 嶺南考古學會, 1988.

44) 金成龜,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塼小考」, 『美術資料』 第33輯, 國立中央博物館, 1983.

45) 김유식, 2000, 「앞의 논문」, p.233.

박홍국, 2000, 「앞의 논문」, p.58.

46) 김유식, 「앞의논문」, 198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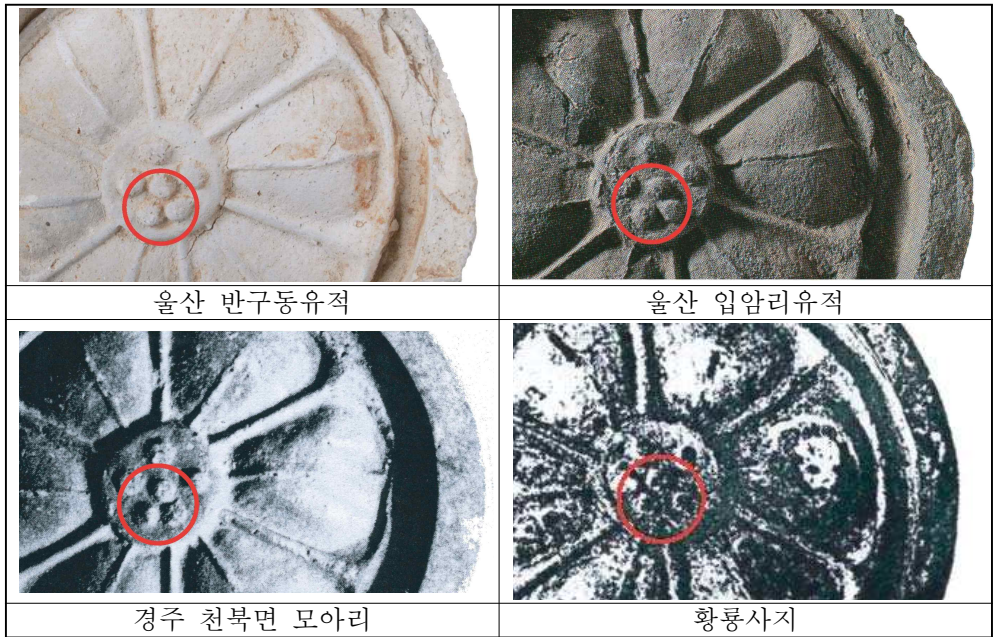


그림 36. I-2형식 동범의 예

I-1형식의 수막새에서 목제 와범의 훼손흔이 동일한 것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자방내의 연자의 위치와 연잎 모양, 사이잎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범으로 보인다. [그림 37].

경주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와 同范瓦가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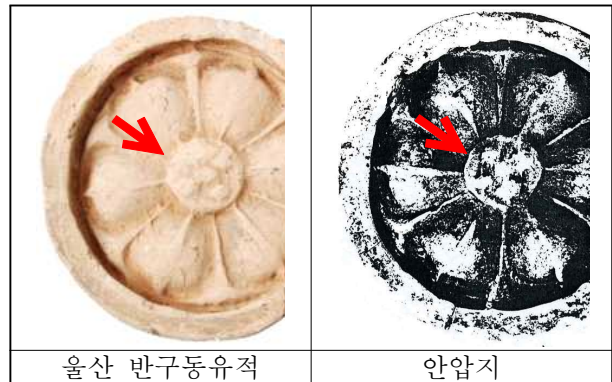


그림 37. I-1형식 동범의 예

밝혀졌으며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도 유적간에 同范瓦가 다수 확인된다 [그림 38]. 특히 반구동유적, 반구동 토성지, 입암리유적 3곳의 건물에서 I-1형식과 I-2형식의 막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보았을 때 7세기 초 동시기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기와들은 경주 왕경에 위치한 와공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져 경주에서 생산되어 울산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

막새는 중앙관리하에 생산된 기와가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울산지역의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이 일부에 불과하여 앞으로의 발굴성과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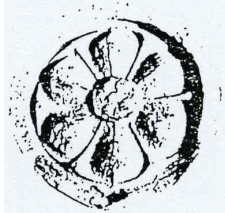
|             | 울산 반구동유적                                                                          | 반구동토성지                                                                            | 울산 입암리사지                                                                          | 취선사지                                                                               |
|-------------|-----------------------------------------------------------------------------------|-----------------------------------------------------------------------------------|-----------------------------------------------------------------------------------|------------------------------------------------------------------------------------|
| I<br>-<br>1 |  |  |  |  |
| I<br>-<br>2 |  |  |  |                                                                                    |
|             |                                                                                   |                                                                                   |                                                                                   | 중산동사지                                                                              |
| IV          |  |                                                                                   |  |  |

그림 38. 울산지역 출토 고식연화문수막새의 同范瓦

## V.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울산의 지리적 특징

울산지역은 천연적인 양항을 갖추고 있으며 경주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고대부터 경주 남쪽의 관문이자 외항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 성덕왕 21년(722)에 관문성을 축조하여 동남방으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은 동해에서 경주로 들어가거나 경주에서 동해를 통하여 국외로 진출하기 위한 신라의 외항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sup>47)</sup>.

울산지역이 언제부터 신라에 편입되고 신라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았을 때 울산이 신라화 된 시기는 3세기 중엽~4세기 전반대의 어느 시기로 보고 있다<sup>48)</sup>. 직접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울산지역이 신라가 동남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빠른 시기에 신라의 직접 통치지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불교를 가장 늦게 수용하였으며, 6세기 전반에 공인하였다. 이후 신라 불교는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전파되었을 것이며, 불교의 전파와 함께 지방의 사원건축이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 차원의 불교공인 이후 대대적인 불사가 벌어지면서 경주로 통하는 통로에 있었던 울산에도 많은 절이 들어서게 된다. 한국의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불교문화도 일찍부터 꽃피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 [표 8]에서 확인된다. 황룡사가 건립되던 시기에 장륙존상의 주조재료가 울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모형을 모시기 위한 동축사가 건립되는 등 많은 사찰이 건립된다.

울산은 고신라시대 관련유적뿐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된 불상의 하나인 太和 13년(489) 명 북위 불상이 문수산 동남방 삼동면 직동리에서 출토<sup>49)</sup>되었으며 불상 발견지점에서 2km 지점인 은현리에서 고구려 초기 무기단

47) 백승옥, 『울산광역시사』 1-역사편-, 2002.

48) 백승옥, 앞의 논문, 2002.

49) 李正曉, 「傳蔚山出土太和十三年489年銘石造佛像に關して」 『考古學論功』 21, 檀原考古學研究所, 1997, p.85~94.

| 사찰명 | 창건년<br>대  | 위치                            | 참고문헌                        | 관련<br>승려 | 비고                                    |
|-----|-----------|-------------------------------|-----------------------------|----------|---------------------------------------|
| 동축사 | 6세기<br>후반 | 울산시 동구<br>미포리(미역골<br>또는 대추밭골) | 『三國遺事』卷三 塔像<br>皇龍寺丈六        | -        | 미포리 일대는 공장이<br>들어서 그 흔적조차<br>찾을 수 없음. |
| 태화사 | 7세기<br>중엽 | 울산시 중구<br>태화동 반탕골<br>일대       | 『三國遺事』卷三, 塔像4<br>黃龍寺九層塔條    | 자장율사     | 9세기대의 보물 제441호<br>십이지상부도만이 남아<br>있음.  |
| 반고사 | 617-686   | 울산시 울주군<br>두동면 천전리<br>211-1   | 『三國遺事』卷五, 避隱8<br>朗智乘雲, 普賢樹條 | 원효대사     | 대곡리사지로도 불림                            |
| 혁목사 | 고신라       | 울산시 울주군<br>청량면 일대             | 『三國遺事』卷五, 避隱8<br>朗智乘雲, 普賢樹條 | 낭지       | -                                     |
| 암유사 | 고신라       | 알 수 없음                        | 『三國遺事』卷五, 意解5<br>慈藏定律條      | 자장율사     | -                                     |

표 8. 문헌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신라시대 사찰

식 적석총과 유사한 형태의 적석총이 확인되어 고구려 관련 유적과 유물도 확인되고 있어 삼국시대에 울산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울산지역에서 5세기 초 활약한 박제상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제상은 눌지왕 때의 충신으로서 고구려와 왜국에 볼모로 잡혀있던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에서 왕자 복호를 구하여 귀국시키고 왜국으로 건너가 왕자 미사흔을 구출한 인물이다. 박제상과 관련된 유적지로 제상이 왜국으로 떠날 때의 출발지로 알려진 읍포, 울산시 두동면 소재의 망부석과 치술령, 은을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치산서원 등 박제상과 관련된 유적지가 남아 있다.

고신라시대에 울산지역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고고학적인 유물로 신라 왕경의 중심부에서만 출토되는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들 수 있다. 울산에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을 보면 4개의 중요한 교통로상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39]. 태화강과 동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반구동유적이 울산에서 경주로 연결되는 길목인 지금의 7번 국도에 중산동사지가 있다. 그리고 언양과 양산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길목인



지금의 35번 국도에 반고사지와 양수정유적이 있으며 언양과 울산에 연결하는 태화강변에 입암리유적과 취선사지가 있다. 이 주변에는 경주지역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차이가 없는 대단위의 고분군들이 확인되고 있다.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유적을 통해서 고신라시대의 울산에서 왕경까지의 이동경로까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반구동유적은 태화강과 동천이 합류하는 울산만 입구에 있다. 위치적인 중요성 때문에 고신라시대 유적인 반구동유적을 비롯하여 주변에는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성곽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표 9]의 태화사지와 동축사지도 이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산동사지는 현재 경주로 가는 7번 국도변에 있으며 주변에는 발굴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유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의 고분유적과 생활유적이 확인된다. 고분유적은 울산 중산리유적<sup>50)</sup>, 울산 중산동 543유적<sup>51)</sup> 등에서 삼국시대 석곽묘·석실묘 등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생활유적은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sup>52)</sup>, 울산 중산동 715-1번지유적<sup>53)</sup>, 중산동 667-1번지유적<sup>54)</sup>에서 삼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생활관련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건물지, 굴립주건물지를 비롯하여 수혈, 구상유구, 주혈군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爐刑土器, 고배, 호류 등이다. 이 일대에 6~7세기 대 대단위 취락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인접해서 중산동 고성지가 확인되는데 이곳에서 고신라시대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관문성이 축조되는 것으로 보아 중산동사지는 울산 반구동유적과 왕경으로 이어지는 거점으로 교통로도 추정할 수 있다.

입암리유적은 경주와 언양, 양산, 울산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

50) , 『蔚山 中山里遺蹟Ⅰ』, 2006.

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中山里遺蹟Ⅰ』, 2006.

51)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中山洞 543遺蹟」, 『蔚山玉洞遺蹟』, 2005.

52) 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蔚山 中山洞 二化遺蹟』, 2004.

53) 嶺南文化財研究院, 『蔚山 中山洞 715-1番地遺蹟』, 2003.

5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蔚山光域市 中山洞 667-1번지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999.

하고 있으며

반구대부근에는 경주와 언양, 양산을 이어주는 현재 국도 35호선이 있으며 그때에도 경주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곳에는 신라인들이 남긴 천전리각석에 글이 새겨져 있으며 천전리각석 바로 옆에는 원효가 수행한 반고사지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곳은 왕족과 화랑들이 자주 왕래하던 곳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사찰 장천사지<sup>55)</sup>, 방리사지<sup>56)</sup>와 신라 초기인 2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의 고신라시대 고분인 하삼정 고분군<sup>57)</sup>이 확인되고 있다. 경주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울산 양수정유적이 나온다.

이렇게 울산은 지역적 특성상 외래문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으로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대단위의 고분군과 생활유적은 귀족과 왕족들의 경주에서의 왕래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이 울산에 거주했던 것 까지 추정해 볼 수 있다. 반구동유적을 비롯하여 교통로상의 중요한 거점마다 국가적인 조영 사업으로 기와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

55) ,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内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2.

5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앞의 보고서』, 2002.

5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울산대곡댐 편입부지내 4차 발굴조사 하삼정 고분군 4차 지도위원회 자료』, 2004.

## VI. 맺음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신라시대 고식연화문수막새 278점을 대상으로 속성분석과 형식분류를 통해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경주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IV·V장에서 살펴보았다.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형식분류를 기초로 앞서 살펴본 속성들과 함께 공반유물들을 참고하여 크게 3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 I 형식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고식연화문수막새로 6엽의 단판연화문과 연잎 중앙에 능선을 표현하였다.

2단계- II·III형식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잎은 8엽, 10엽이며 전형적인 고식수막새 형태를 기본으로 연잎, 자방의 변화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연잎의 수가 8엽, 10엽으로 늘어나면서 연잎이 세장해지고 볼륨감이 없어지게 된다. 능선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

3단계- IV형식이 여기에 해당하며 1·2단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중앙 능선에 의해 꽃잎이 양분된 복엽의 형태이다.

공반유물·속성분석·수키와부의 특징과 경주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7세기 초~7세기 중엽 경에 제작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고 1단계→2단계→3단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계별 출토량을 보면 1단계 7세기 초에 해당하는 출토유물의 양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반구동유적과 양수정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지표에서 수습되었지만 7세기 초에 가장 왕성하게 관청과 사찰이 건립되고 이후 보수만이 이루어지면 통일 전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와 同范瓦가 다수 밝혀졌으며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도 유적 간에 同范瓦가 다수 확인된다. 이것은 경주에서 생산되어 경주와 울산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는 중앙관리하에 생산된 기와가 공급되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 왜 고식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문헌자료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다. 울산은 신라의

왕경인 경주와 인접하여 신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신라의 외항이면서 교류와 외교의 관문이었다. 그래서 울산은 일찍부터 기와를 사용한 관부건축과 사찰이 조영되었다.

본고에서는 반구동유적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중심으로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약된 논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나머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실견하지 못한 것은 이 논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울산지역의 기와연구는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면 본고의 내용도 수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고식연화문수막새를 정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하며 이 글이 울산지역의 기와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 2. 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 I』, 2002.

\_\_\_\_\_,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 2004.

\_\_\_\_\_,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2004.

\_\_\_\_\_,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2005.

\_\_\_\_\_,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I』, 200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197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1982.

文化財研究所 古蹟發掘調査團, 『월성해자 발굴조사보고서 I』, 1990.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 中山洞 543遺蹟」, 『蔚山玉洞遺蹟』, 2005.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蔚山 中山洞 二化遺蹟』, 2004.

\_\_\_\_\_, 『울산 반구동유적』, 2009.

영남문화재연구원, 『蔚山 中山洞 715-1番地遺蹟』, 2003.

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中山里遺蹟 I』, 2006.

\_\_\_\_\_, 『蔚山 中山里遺蹟 II』, 200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蔚山市 中山洞 667-1번지 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999.

\_\_\_\_\_,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1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2.

\_\_\_\_\_, 『蔚山 대밀·兩水亭·上三亭·三亭里遺蹟 -蔚山圈 廣域上水道(大谷댐)事業 編入敷地內 5次 發掘調査-』, 2008.

### 3.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菊隱 李養璿 蒐集文化財』, 1987, p.125.

國立慶州博物館·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新羅瓦塼』, 2000.

국립중앙박물관,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2002.

### 4. 단행본

김동현 외, 『新羅의 기와』 建築과 文樣(上), 韓國建築史大系V, 東山文化社, 1976.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송수환, 『울산의 역사와 문화』,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윤명철, 『한국 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 5. 논문

姜鐘薰,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에 대한 一考察」, 『울산연구』, 1999.

金基民, 『新羅기와 製作法에 관한 研究 -慶州 勿川里 出土기와를 중심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1.

金成龜, 「雁鴨池出土 古式瓦當의 考察」, 『美術資料』 29, 국립중앙박물관, 1981.

\_\_\_\_\_,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 第33號, 國立中央博物館, 1983.

\_\_\_\_\_, 「百濟·新羅의 瓦窯」, 『佛教藝術』 209號, 1998.

\_\_\_\_\_, 「新羅기와의 成立과 變遷」, 『新羅瓦磚』, 2000.

\_\_\_\_\_, 「蔚山の 신라기와」, 『유적과 유물로 본 울산의 생산과 유통』, 울산광역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金有植, 「月城郡 川北面의 新羅窯址」, 『慶州史學』 제 3집,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국사학회, 1984.

\_\_\_\_\_, 「7-8세기 新羅 기와의 需給」,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국립경주박물관, 2000.

\_\_\_\_\_, 「蔚州郡 立岩里 出土 蓮花紋圓瓦當에 對한 小考」, 『佛教考古學』 創刊號, 위덕대학교박물관, 2001.

\_\_\_\_\_, 「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의 研究成果와 課題」, 『기와를 통해 본 ‘미륵사와 황룡사’』, 한국기와학회, 2006. 11.

김유성, 『불국사 경내 출토 귀면문암막새의 변천과정』,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金必淑, 「막새의 接合技法에 관하여」, 『年報』 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8.

노윤상, 『新羅時代 蓮花文수막새 研究-慶州地域 寺址發掘出土品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請求論文, 2005.

朴恩辰, 『芬皇寺 출토 수막새에 관한 研究 -문양과 제작방법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磚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磚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請求論文, 1986.

\_\_\_\_\_,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窯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5, 嶺南考古學會, 1988.

\_\_\_\_\_, 「新羅 古式수막새 文樣面의 二次手作業施文痕」, 『慶州 南山 長倉谷 新羅 瓦窯址 地表調査報告書』, 위덕대학교박물관, 2001.

\_\_\_\_\_, 「新羅 同紋異形 막새기와에 대한 小考」, 『古文化』 第57輯, 2002.

백승옥, 「삼국시대의 울산」, 『울산광역시사』 1-역사편-, 2002.

- 서오선, 『韓國平瓦文様の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5.
- 신창수, 「皇龍寺址 廢瓦무지 出土 新羅瓦當」, 『문화재』 18호, 문화재관리국, 1985.
- \_\_\_\_\_,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의 編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_\_\_\_\_, 「三國時代 新羅기와의 研究 -皇龍寺址 出土 新羅기와를 中心으로-」, 『文化財』 20,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7.
- 沈奉謹, 「蔚山 伴鷗洞 土城址」, 『考古歷史學志』 第八輯, 동아대박물관, 1992. 8.
- 尹根一, 『統一新羅時代 瓦當의 製作技法에 關한 研究 -雁鴨池出土遺物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미술사전공, 1977.
- 李善姬, 「月城垓字 出土 수막새의 製作技法과 編年 研究-古式 수막새를 中心으로-」, 東亞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6. 12.
- 이인숙,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전호태, 『울산지역 신라 불교유적의 현황과 과제』, 「울산연구」 제3집, 2001.
- 趙成允, 「慶州 出土 新羅 평기와의 編年 試案」,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0.
- \_\_\_\_\_, 「新羅 出土 中版 打捺文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 第 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2002.
- \_\_\_\_\_, 「7世紀 前半頃 新羅 古式 蓮花文수막새의 製作技法에 대하여」, 『東西文物』 創刊號, 2007. 12.
- \_\_\_\_\_, 「新羅 長板 打捺文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제30 집, 이화사학연구소, 2003.
- \_\_\_\_\_, 「新羅 古式 蓮花文수막새의 製作時期에 대하여」, 『釜大史學』 第三十輯, 釜山大學校史學會, 2006. 8.
- \_\_\_\_\_, 「新羅 瓦로 본 雁鴨池 築造에 대하여」, 『佛教考古學』 第6號, 威德大學校博物館, 2006.
- 崔女珍, 『古新羅 蓮花文 瓦當의 形式과 系統』, 公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7.
- 최태선,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1993.

## 6. 국외논문

- 高正龍, 『韓國嶺南地方から發見される古式瓦当について』, 1993
- \_\_\_\_\_, 「新羅古瓦について覺書-ひろたコレクションの資料調査を通して-」, 『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研究概要』 第6號, 2000.

北九州市立歴史博物館, 『新羅の古瓦埴』, 1975.

上原眞人, 「平安貴族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つてと-」, 『歴史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濱田耕作・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 1934.

井内古文化研究室, 『朝鮮瓦埴図譜Ⅲ』百濟・新羅 I, 1978.

劑藤忠, 「慶州附近出土の單瓣蓮花文古瓦の一型式-蔚山郡凡西面立岩里遺址出土例を中心として」, 『夢殿』第18冊特輯號, 綜合古瓦研究, 1983.

# A Study on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the Ulsan Area

- Focused on the relics of Bangu-dong, Jung-gu, Ulsan -

Ji, Yun Mi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process and period of 278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the Ulsan area by analyzing their attributes and categorizing them according to types. They were also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excavated in Gyeongju to estimate their origin. Ulsan's local characteristics were considered to figure out why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which used to be excavated in Shilla Kingdom, were excavated in the Ulsan area.

Based on the categories according to types, the attributes of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the Ulsan area and their accompanying artifact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as follows: Type I is included in the stage and expresses typical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with six-leaf single lotus design and ridges in the middle of each lotus leaf.

The second stage is as follows: Type II and III fall under this stage, which saw changes to the lotus leaves and ovaries. The lotus flowers have eight or ten leaves, and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take the typical form.

And the third stage is as follows: Type IV corresponds to the stage, which completely differs from the first and second stage. The compound leaf is

divided in the middle by the ridge.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of Ulsan were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of Gyeongju in terms of accompanying artifacts, attributes, and male roof tiles. The comparison results show that the former were made in the early to middle 7th century and went through changes from Stage 1 through Stage 2 to Stage 3. As for the amount of artifacts excavated by the stages, Stage 1 of the early 7th century recorded the biggest amount. It's because all the artifacts were collected from the surface except for the relics in Bangu-dong and Yangsujeong.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official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s was the most active in the early 7th century with only maintenance efforts added since the construction until the unification.

There are many dongbeomwas among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Gyeongju, and it's the same with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among the relics of Ulsan. The result suggests a possibility that they were manufactured in Gyeongju and distributed to the city and Ulsan. In other words,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Ulsan were the supply of Gyeongju roof tiles.

Literatures and archeological data were examined to figure out why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were excavated in Ulsan. Adjacent to Gyeongju, the capital of Shilla, Ulsan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untry evolving into an ancient kingdom. An outer port of Shilla, it was the gate to its exchanges and foreign diplomacy. As a result, Ulsan started its construction of official buildings and Buddhist temples early and developed the industry of roof tiles.

Since the study is limited to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from the Bangu-dong relics, the results may contain a leap in logic. Another limitation is that it didn't investigate the artifacts excavated in the rest of the Ulsan area. Full-scale researches on Ulsan's roof tiles have not started yet, which means that new data can lead to revisions to the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at it reviewed and sorted out the roof-end tiles with lotus design of the early excavated in the Ulsan area. The results will hopefully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searches on Ulsan's roof tiles.